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차천지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지역화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통장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입해는 약정금리로!
•교육자금·주택자금·결혼자금·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9월 2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악을 멀리하고 선을 쌓음으로써 불국토를 장엄한다.
〈십주경〉

법회 안내

일지사 (02)878-3653
자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일요교리강좌 매주 수 오전11시
어린이 한자교실 토 · 일 오후3시

묘각사 (02)763-3345
인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염산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동해 삼화사 (0394)34-8313
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중고등학생법회 둘 · 넷째 일 오전11시

광주 항림사 (062)375-7600~2
입문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중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광주 광륵사 (062)222-7801
정기법회 매월 8일(음) 약사재일
좌선법회 매주 금 오후3시
독경법회 매주 금 오후4시

광주 홍룡사 (062)651-5083
신중기도법회 매월 초하루~초사흘(음) 오전9시
칠성법회 매월 7일(음) 오전9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9시

부산 화엄정사 (051)206-5615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매월 15일(음) 오전11시
불교대학강의 목 · 금 오후8시

부산 영화사 (051)416-3529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매월 7일(음) 오전10시

부산 개운사 (051)521-4848
정기법회 매월 15일(양) 오전10시
매월 19일(음)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국립공원 입장료·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

교계 강력 반대

현재 합동징수되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가 민원해소를 이유로 분리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합동징수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접한 조계종은 "자연공원법과 국립공원 자체가 교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20여년전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구획되었기에 그동안 사찰의 엄청난 재산이 국가행정편의를 위해 제공돼 왔다"며 "분리징수를 강행한다면 입장객들에게 '이중징수'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계속적 민원 발생과 함께 사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다"고 우려,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일 내무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석해서 분리징수의 부당성을 설명했고 5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과 13일 민자당 김운환 대표 14일 민주당 박일 대표와의 환담에서도 분리징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현행 합동징수제를 법제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운환 민자당 대표는 실무자에게 검토시켜 불교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열린 조계종 관람료사찰 주지회의에서도 스님들은 "만일 정부가 분리징수 추진 등과 같은 일방적 정책을 강행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사찰재산이 땅이 들어가 있는 국립공원을 교계에서 관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교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충북 보은군이 행정쇄신사항으로 국립공원 입장료와 관람료를 분리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요청했으나 법무사는 현 공원 입장료 징수장소를 비롯 속리산 암대가 모두 법주사 소유임을 들어 강력 반발 보은군이 없었던 일로 하자고 취소했다"고 밝히며 지자체 실시로 인해 이러한 일이 곳곳에서 발생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수려하고 보존이 잘되어 있는 경관지는 대부분 사찰의 재산으로 되어 있음을 상기, 당해 건물뿐 아니라 소재하고 있는 전체 경관지가 모두 사찰임을 인식시킬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람료사찰 주지회의에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문화재 관람료 금액 결정의 자율화, 예치금제도의 폐지, 경미한 현상변경의 자율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관람료 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치금의 활용, 관람료사찰 관리법안 제정 등을 '국립공원 및 관람료 사찰 현안개선 대책위'에 위임했다.

〈이경숙 기자〉



◇ 지난 14 · 15일 양일간 열린 '96 종교 세미나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등 1백여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종교의 역할을 통한 민족 화합을 다짐했다. 이자리에는 이홍구 국무총리, 나웅배 통일부총리, 주돈식 문체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남북 종교교류로 민족 공동체 형성"

종교지도자 세미나서 상호신뢰·화합 강조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문체부가 공동주최한 '95 종교지도자 세미나가 지난 14일, 15일 서울 '한국의 집'과 경기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등 각 종교지도자 1백여명과 이홍구 국무총리, 나웅배 통일부총리, 주돈식 문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의 집에서 열린 제1부 '정부와의 대화'에서는 통일원 장관의 통일정책 설명과 문체부장관의 종교정책 설명, 국무총리와의 대화가 진행돼 종교계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나웅배부총리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종교교류는 적극 지원하겠다"며 최근 종교 · 자선 · 시민단체의 북한수해 지원 움직임과 관련, "적십자로 창구를 일원화해 지원금등을 북한적십자에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홍구총리는 "종교간의 상호신뢰와 화합은 민족대화합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독일통일에서 종교가 물리적 통일을 정신적 통합으로 바꾸는데 기여했듯이 우리 종교계도 민족공동체에 희망을 불어넣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요지 6면〉

직지사 환경운동 앞장

보호회 창립 실천나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녹원스님)가 환경보호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직지사는 지난 15일 '제8교구 환경보호회'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8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지역 기관장, 신도등이 다수 참가했다.

주지 녹원스님을 위원장으로 부주지 법성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호회는 회장에 유영석씨, 부회장에 김태한, 노진호씨를 각각 선임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회는 조직운영규과 환경보존대책규이 주업무 부서로 활동하고 은영위원단과 지도법사단도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환경보호회는 앞으로 각 지역단위 조직의 결성과 각 말사 스님 및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8교구 지역내의 환경 실태조사와 방생운동, 짐승먹이주기, 산중쓰레기 수거, 나무뿌리 덮어주기등의 실천사업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주지직 代물림 시정돼야"

월하종정, 종단풍토 개선 강조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주지 임면과 관련 "임기가 끝나 주지가 바뀌어도 상좌, 손상좌로 이어져 결국 독살이 하는 경우가 많아 본사예산의 집행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월하스님은 지난 6일 통도사 정변전에서 조계종 상반기 종무행정 보고차 예방한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종단풍토 개선을 강조했다.

월하스님은 또한 선학원 문제와 관련 "선학원소속 스님들이 조계종단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무조건 흡수하기보다는 원만한 협상으로 처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분리방안도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종정스님이 종단내의 민감한 문제와 행정체제 개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조계종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 고속철 통과시 세계문화유산 차질"

유네스코 사무총장 밝혀

경부고속철도가 경주도심을 통과할 경우 경주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한 페데리코 마요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주돈식 문체부장관을 예방,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이 문제에 관해 유네스코 차원에서 협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경주시 전체를 한반도에서 유일한 세계문화유산 지정 대상으로 파악, 문화유산 지정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측은 지난 8일 경북대박물관에 의뢰한 문화재 훼손 여부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당초 3.5km로 돼있던 자하화 구간을 12km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身土不二'는 불교 용어 14면
조계종 중앙신도회 10월 창립 15면

목어

천년 세월의 옷

'대고려 국보전'이 끝나던 날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이었다. 오후 2시30분쯤 전시장에 들어가려는 매표소앞의 줄은 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구불구불 이어졌다.

가족끼리 손잡고 나와 1천년전 작품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장면은 '한국인의 긍지'를 서로 주고 받은 또 하나의 흐뭇한 모습이었다.

아, 불자들이 이렇게 많았던가.

전시품의 대부분이 불교작품이므로 여기저기서 수월관음도에 대해 설명하고 부처님의 나발을 일러주는 부모들의 목소리에는 신이 올라 있었다.

그곳은 불법이 승화는 포교현장이었다. 법사는 1천년전 불심으로 성보를 탄생시킨 장인들, 그들은 천년후인 오늘 무언의 설법을 하고 있었다.

어떤 젊은이들은 일본 소장품 앞에서 울화통을 터트렸다.

"좋은건 다 가져 갈군. 도로 찾아와야 돼."

또 어떤 이들은 이런말도 했다. "지금도 저렇게 만들면 되잖아."

이 말은 오늘의 불교미술인들에게 주는 과제일 수도 있다. 고려대의 작품 그 이상의 명품을 이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13일 공평아트홀에서 개막된 미술의 해 기념 불교미술 특별기획전은 바로 이러한 숙제의 답을 풀어 볼 수 있는 전시장이었다. 불심과 예심에 천년세월의 옷이 입혀지긴 했지만 우리는 고려미술과 현대 불교미술을 번갈아 보면서 천년후를 연상해 봐야 할 것이다. 오늘의 불교미술인들은 고려의 어느 화공 또는 금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후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시 천년을 준비하는 새 옷을 입자.

曉星그룹 신뢰받는 기술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종합중전기에서 첨단기술산업까지
효성중공업의 생산제품 소개
●중전기기 및 송변전 설비 : 초고압 송변전 설비, 초고압 변압기, 배전 변압기(유입, SF_6GAS, 건식, Mold, Amorphous), 초고압 GIS, GCB, DS, 각종 배전반, 통합기 및 변전설비, 철탑, 철구조물 ●산업용 기기및 설비 : 권크 감속기, 슬루기, 크레인, 수문, 선도, 산업설비, 환경보전 및 수처리설비, 각종기계장치,화학장치, 주차설비 ●회전기기 : AC 전동기, DC전동기 및 Drive System, 발전형 전동기, AC서보모터, 브레이크 모터, CLS 전동기, 발전기, 각종 특수전동기 및 전동기 기동장치 ●전력전자 및 FA : 자동창고, UPS, 프로그래머 블 콘트롤러(PLC), 수·배전반, 전력 감시제어장치, 분산형 제어 시스템, 계장설비, 각종 콘트롤러, 교류전자 접촉기, 개폐기(MC,M/S), 배선용 차단기(NFB), 진공차단기(VCB) ●건설 : 효성빌라, 주택건설, 각종 건축 공사
FA기기 산업용기기 건설 회전기기 중전기기 전력전자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

사 설

'첫 삽질' 하는 자세로 거듭나길

—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기공식에 부쳐

조계종단의 3대사업은 도제·역경·포교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제양성이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승려교육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어야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백번 타당하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거룩한 혜명을 계승하며 동시에 세간 사람들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스승은 존경받을 수 있을 때 스승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런 점에서 일반 교육계의 스승보다 성직자의 역할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님에 버금가는 위의와 지혜 그리고 복덕을 갖추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교육은 수행의 초석과 같다는 점에서 엄격한 체제와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상응하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5일 종단의 중요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중앙승가대학이 제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김포로 확장이전하는 기공식을 갖고 첫 삽질을 했다. 차제에 중앙승가대학이 더욱 발전하길 발원하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몇가지 고언을 하고 싶다.

우선 승려전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이 교육의 틀을 완전히 갖추기 위하여 넓은 교육공간을 확보하여 확장이전하는 일은 부처님의 혜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란 점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이전 비용이 수백억원이나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회의론적 여론도 있다. "과연 조계종의 재정형편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을까" "꼭 학사를 이전해야만 하나" 그래서인지 한동안 뜸했던 삼보정재의 처분이란 바람직하지 않은 종단풍토를 재연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종단의 교육사업이 중앙승가대학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동국대학과 지방승가대학(강원) 그리고 행자교육원 내지 상설 승려 재교육기관 등을 내세워 투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미 정부와 합의되었으며, 교계에서도 교육의 명분을 내세워 학사 이전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뒷걸음칠 수는 없지 않은가. 다만 승가대는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이런 교계 내외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거듭날 수 있는 자성의 기회로 삼길 당부하고 싶다.

한편 승가대학은 수행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율장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가 여과없이 교육받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학교를 빙자하여 율장을 무시하고 출가 수행자의 본 바탕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승가대학에서 교육받는 스님들은 학생으로 보다는 수도하는 스님으로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육과정이 일반대학과 같아서는 안될 것이다. 전통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수행자에 맞는 교과목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운영도 종단이 출자하는 것에 비해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동문의 힘이 필요 이상으로 작용한다는 여론은 승가대학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돌이켜 보아야 할 점이다. 종단도 지원하는 만큼 종단의 앞날을 생각하여 철저한 점검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현대만평

박구원



집은 네가 잘…

열린마당

여성불자 사회참여

불교신자의 80% 이상은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북경 세계여성회의 NGO포럼 종교분과에는 단 1명의 불교대표도 참가하지 않아 여성불자의 사회참여가 얼마나 저조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여성불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활성화 방안—장휘옥 (동국대 강사)



기복불교 탈피 의식의 잠 깨어나야

불교 생활화가 '나눔' 실천의 지름길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유럽도 아시아도 우리나라도 우리의 국민의식도 변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속에서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의식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불교신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불자들의 의식수준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최근 여권신장으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여성불자들 사이에도 지신과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지게 되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막상 여성불자들의 사회참여도를 조사해보면 타 종교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로 미약하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의 여성불자들은 불교계의 여건이 열악함을 먼저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에 더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래에는 여성불자들이 불교 교양강좌를 들으면서까지 불교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의식수준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를 미신적이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이해의 수준이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 여성불자들의 사회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불교가 생활 그 자체가 되면, 남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므로 스스로 고뇌의 세상으로 나가 중생구제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성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불교에 대해 의식수준이 높아질 때, 여성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저절로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교계 활동현황과 문제점

대부분 봉사단체 활동 '운영 정체상태'

교육프로개발·참여영역 확대 등 시급

그동안 여성불자들은 사찰, 신행단체등을 통해 고아원, 양로원 등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성불자들이 봉사라는 테두리안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대 사회적인 활동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불자들은 정신대 문제, 성폭력문제, 환경운동등에 관심을 갖고 부분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는 있지만 아직 보조자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북경세계여성회의 NGO포럼에도 타종교의 경우 여러단체가 참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불교계는 환경분과에 성덕스님만이 참여했던 사실도 그 단적인 예다.

현재 교계에는 대한불교부인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대한불교정각여성회, 한국불교 전국여법사회, 여성불교회, 불교어머니회, 부산여성불자회, 부산불교 여성문인협회, 경불련 여성위원회 등이 여성불자 단체들로서 활동하고 있다. 개중에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미약한 조직체계와 운영으로 정체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의 여성불자들은 불교계 여성단체에 대해서 그 존재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이들 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여성계의 주요흐름은 타종교여성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타종교의 경우 30년 전부터 전문 교육기관, 단체를 통해 여러 단체가 초종파적으로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중이다.

따라서 불교계도 기존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각 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교류와 협력·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단차원의 관심과 지원 등의 과제해결을 통해 여성불자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함께 불교지도자들의 의식확대와 여성불자들의 잠재적 역량 계발, 각 분야에 여성불자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의 장 마련도 요청되고 있다.

시 론

건강하게 사는 법 아시나요

최근 의료공단의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질병 유무조사에서 대상자의 3분의 1이상(37%)이 건강하지 못하고 특히 50대는 절반이상(53.2%)이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조사대상자가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이 정도이니 일반국민들의 건강은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요즈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보험(국민개인보험)이라는 제도장치도 되어 있고 현대의학의 최첨단장비를 위시하여 우수한 치료방법도 이용할 수 있으며 그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생활도 많이 윤택해져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 평균수명도 60~7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때 건강하지 못하는 원인을 단순히 자기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태만(일부 의료계의 주장)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진 성 태
〈신경정신과 원장〉

고금동서를 통해 사람은 생노병사(生老病死)를 면할 수 없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는 어렵고 소위 무병장수는 어디까지나 이상(理想)이지 현실은 아니다.

현대의학에서 본 건강의 개념(槪念)은 세가지 차원 즉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환경적인 안녕(安寧)상태에 있음을 건강이라고 정의(定義)내리고 있다.

위의 세가지 측면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현대인 건강 이상 37%

따라서 근래 우리가 경험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인 변동은 생활환경과 의식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각종 공해를 초래하고 우리들에게 각종 불건강을 일으키게 했다. 개인적으로 제아무리 자기건강관리를 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환경에 더더욱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공해(公害)는 대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물질적 공해요, 또 하나는 정신적 공해다. 물질공해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환경파괴 등에 뒤따르는 각종 오염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화, 공업화에 따른 부산물이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예방조치가 철저해야 겠다. 다음은 소위 정신 공해다. 여기에는 각종 스트레스가 해당된다. 산업화, 도시화, 생활환경의 변화 등은 여러가지 정신적 갈등, 불안, 초조 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공해외에 우리는 많은 사고(특히 자동차)를 경험하여 자동차사고왕국이란 불명예스러운 말도 듣고 있어 '인명은 재차'(人命 在車)라 할 정도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수가 많다.

모든 생명체는 한 뿌리

그리고 각종 산업재해(産業災害)가 늘고 있고 환경파괴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고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 종전에 없었던 신종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만연되고 있으며 과거에 없던 기후 변화등 자연환경의 이변을 경험하고 있고 예언자들은 조만간 지각의 변동으로 인한 지구의 큰 변화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상의 모든 환경변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인체에 이상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불교에서는 천지동근(天地同根), 만물일체(萬物一切)를 말한다. 지구가 앓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중생)도 앓게 마련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몸을 해치는 결과를 불 보듯 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연기(緣起)적 관계를 갖는 업(業)의 복합체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제살 제가 파먹는 꼴이 지금의 형국(形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대승불교의 심오한 사상을 지혜로 삼아 업진을 소멸하고 지혜를 밝혀 현세의 고통을 극복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질병과 생노병사가 없는 세계를 업과 윤회(생사)를 초월한 경지—우주상병의 참된 근원(一心源)—에 이르도록 다 같이 노력할 때 영원한 생명을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그 어느때 보다 불교를 생활화하여 생활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중불교가 되도록 다같이 힘써야 겠다.

체력은 곧 국력이다. 이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 주는 기본요소가 국민 각자의 건강임을 말해준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청정하고 바르게 살려는 마음의 건강도 중요함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랑 넘치는 환한 세상 만들기 「무료강좌」

1995년 가을학기 제3회 자원봉사 시민대학개설안내

1) 길동 관음의 집 개소식을 알립니다.

관음의 집이란?

스스로의 영적각성을 위해 끊임없이 부처님을 명상하면서 이웃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① 물질적 후원 ② 기술적 봉사 ③ 관음기도로 작은 자비를 나누는 자원봉사센터(무료급식소, 환경헌옷은행)입니다.

- 개소일시 : 1995년 9월29일 금요일 오전11시
- 개소장소 : 강동구 길동 367-4호 관음의 집
- 문 의 : ☎ 723-6258 / ☎ 483-5061

2) 제3회 자원봉사시민대학개설

자비와 봉사의 정신으로 병든이, 길 잃은이 외롭고 가난한 이들의 등불이 되고 어진벗이 되어주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의 선한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곧 연락주십시요.

한 사람의 선한 뜻은 우주의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 교육일시 : 1995.9.25~12.15까지
▣ 교육장소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사무실
▣ 접수문의 : 종로사무실 ☎ 723-6258~9
▣ 접수기간 : 1995.9.1~9.25까지
▣ 교 육 비 : 무료
※ 교육후 상담을 통하여 전원 자원봉사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차량안내
〈일반버스〉 2, 8, 20, 84, 205, 331, 543 (종로경찰서 하차)
〈좌석버스〉 8, 84, 205-1, 543 (종로경찰서 하차)
〈지 하 철〉 3호선 안국역 하차 (종로경찰서 출구)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21 최만과 3층) (종로경찰서 부근)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전문봉사시대를 준비하는 자원봉사자교육

가족과 이웃위해 사랑의 악손되는 자비수지침초급반	죽음도 삶의 한 과정임을 장중하게 일깨는 비하라(불교호스피스)교육	만법이 귀일하는 곳으로 함께 떠나는 불교기본교육	작은 자비 나누기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코스 태극수지요법	민족 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초의다법 지도강사 코스 차문화교육
• 수지침이란? • 수지침 기본 용어 • 전통 침과의 관계 • 탈의 원인과 범위 • 상응요법/임상요법 • 구급법/침구술 역사 • 수지침 치료의 한계 • 기맥에 대하여 • 초급과정 총정리 ※응급처치 교육후 수료증 취득	• Hospice의 개관 • 암환자의 말기 현상과 Hospice • 환자와 가족의 심리간호 • Hospice자원봉사자의 역할 • 한국인의 전통적인 죽음관 • 특수 간호학 실제 • 열반후 염습방법과 실제 • 21세기와 불교사회복지의 과제 • 삶과 죽음에 대한 종교적 이해 ※응급처치 교육후 수료증 취득	부처님 일대기, 불교의 정이 삼귀의·사홍서원·십대제자 삼법인 12처 오온설 연기의 진리, 업설 윤회설 사성제 열반 해탈설 불상 보살상 주불전사찰내건물 법구, 사찰내예법, 불자수도행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교육후전원:신도5계/기도지도〕	수지치료의 기초원리와 체계 태극암봉치료법, 반지치료법 기경8맥교회혈치료법 신비의 영점치료비법, 임독맥요법 등 (교육특징)동의학의 초보자라도 이 태극암봉의 기본방을 터득하면 허·실·보·사의 진찰과 치료를 쉽게 익혀 가족과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후 수료증 취득	초의 행다법(행다실제) 차생활의 시작, 성분과효능 차의 일반적 정의, 명칭 차나무의 종류와 분포 차의 기원과 전래 차의 정신, 차의 감별과 보존 물의 선택, 물의 조절 문무화 차의 분류와 제다법 차의 도구와 사용법 한·중·일 차문화 비교론 등
9.26~12.15(3개월) 매주 화·수 오후 2시~4시	9.28~12.15(3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2시~5시	9.25~12.15(3개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9.25~12.15(3개월) 매주 월·목 오전 10시~12시	9.29~12.15(3개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시
자원봉사 지도자 공통이수 코스 불교경전교육 불교학과(불교법사과)	방송, 그 엄청난 영향력에 함께 대비하는 방송모니터교육	홍익인간이념의 사회화를 위한 지도자 코스 민족사상교육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그 녹색평화를 실천하는 환경교육	삶과 열반의 불이법문 불교상례봉사를 위한 원왕생교육
• 경전 화엄경 아함경(원시경전) 금강경 법화경 • 불교학개론(원시/부파/대승) • 불교사(인도/중국/한국/일본) • 사상(중관/유식/밀교/화엄/정토/천태/선) • 수행(점찰기도/명상/참선) • 실천포교(비교종교론/계율론/포교방법론/자원봉사론)	• 방송과 시청자 • 방송과 가정 • 시청자 운동과 방송모니터 • 방송모니터 실무(보고서작성요령) • 광고제작론 • 대중문화론 • 방송비평론 • 방송마케팅 • 비판커뮤니케이션 • 방송매체론 • 광고 캠페인론 한국여성모니터클럽 광고모니터 배출	개천경의 문헌사적 고증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사상개관, 홍익인간론 민족사상의 역사적 배경 삼성기 상·하/단군세기 천문학으로 증명된 고조선사 북한 단군릉의 실상	(총론) 불교와환경문제 (수질오염) 썩어가는 하천 (교통·대기)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쓰레기) 풍요의 그림자 쓰레기 문제 (식품) 밥상의 위기 식품공해 (문명) 현대문명위기를 극복하는 열쇠 (지구환경) 전지구적 산림파괴와 민간운동 ※명예환경 감시원교육후 자격증 취득 ※환경 모니터 배출	통일왕생의례 전반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상례식 일반상례의 축문서식 염습의, 성복의, 영결의 화장의, 매장의, 발인작법 한국인의 제례의식, 사후의식 열반후 염습실제, 수시실습 원왕생 독경실습, 장엄염불 ※『정토의 전화』봉사단 발족
9.30~12.15(3개월×4학기)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30분~2시 30분	9.26~12.15(3개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9.29~12.15(3개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30분	9.27~12.15(3개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9.30~12.15(3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불의 혁명' 이후 기온균형 파괴 급증

이산화탄소 · 프레온 · 메탄 가스가 주범
해수면 상승 해일 · 저지대 침수등 피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빙산이 녹아 10㎝에서 최대 2m까지 해수면을 상승시킨다. 사진은 동남극 드라이밸리의 빙하.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㉕

지구의 온난화

한 때에 부처님께서는 박가국 쑹수마라기라라는 마을에 베쌰깔라숲 사슴동산에 계실 때에, 건강한 수행승들이지만 겨울이라 한 커다란 구멍이 뚫린 나무에 불을 지펴 추위를 녹이려 했다. 그때에 구멍 가운데 있던 큰 검은 뱀이 열기에 못이겨 뛰쳐나와 불을 지핀 수행승들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수행승들은 혼비백산해서 모두 흩어져 도망갔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수행승들이여, 건강한 자들이 불을 지펴 몸을 덥히려 하느냐?"라고 크게 꾸짖었다. 이후 함부로 불을 지피우는 것은 참회죄(波逸罪)에 해당하게 되었다.

위 사건은 함부로 불을 지피우지 말라는 것과, 불을 지피면 자연의 보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과 현대문명은 곧 불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 한편으로 불에 의한 오염이라는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석탄과 석유를 불태움으로써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산품을 생산함으로서 이루어져 왔다.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소모량보다 점점 많아져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는 현재 산업혁명 이전보다 25% 이상이 늘어났다.

이렇게 증가된 이산화탄소가 지구 전체의 기온을 상승시킨다. 지구에 도달한 태양에너지 일부가 우주공간으로 다시 방출되면서 생겨나는 적절한 지구기온의 균형을 깨뜨리며 이상온실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지구전체의 기온을 상승시키기는 온실효과가 생겨난다.

물론 이산화탄소 이외에 무분별한 산업활동의 결과로 생겨나는 프레온가스, 이산화질소, 메탄, 오존 등도 온실효과를 가중시킨다. 특히 프레온가스와 메탄가스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1만2천배 및 20배에 해당된다.

가중되는 온실효과로 지구가 데워지고 있는 것이다.

수십억년동안 안정되었던 지구의 기온은—지나온 간빙기 동안에도 지구평균 기온은 불과 1℃씩 높아졌다—지금부터 2100년대 말이 되면 평균기온이 2.5~5.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m의 해수면이 상승하면 15년 주기로 나타나는 폭풍해일의 피해가 현재 100년에 한번 일어나 초대형 폭풍해일이 가져오는 피해와 맞먹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초대형 폭풍해일을 수반하는 해수면 상승은 세계 경작면적의 1/3과 10억 인구의 생활터전을 빼앗아 갈 것이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가 팽창하고 남북극의 얼음과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녹아 해수면에 옮겨지게 된다. 또한 기류와 해류가 변하고 전지구적 생태환경의 변화가 초래되면서 농작물이 감소하는 전지구적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는 연안지역을 따라 발달한 전세계의 모든 도시와 농경지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특히 큰 피해는 원인제공의 측면에서 별다른 죄가 없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세네갈, 수리남 등의 제3세계 국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인류는 지금 너무나 많은 불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바람에 지구라는 우리 삶의 터전에 불을 지피우는 꼴이 되었다. 부처님 당시에 수행승들이 함부로 불을 지피다 검은 뱀의 습격을 받았듯이 달궈지는 지구에서 그 열기는 못이기고 우리를 기습할 공해시대의 검은 뱀은 다름아니라 온실효과에 의한 재앙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 행 캠 페 인

참다운 물자가 됩시다

김종호씨(30)는 여름휴가를 화순 운주사로 갔었는데 못볼 것을 보고 왔다. 운주사 와불상을 참배하고 있는데 젊은부부 가족이 올라오더니 아이들이 와불상 위에 올라가는 것을 못본체 하는 것이었다. 김씨가 와불상 위에 올라가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중에도 여러명의 어른들과 여학생들도 산등성이를 올라와서는 자연스럽게 와불상위에 앉아 잡담을 나누는 것이었다.

잠시뒤 노수녀가 올라와서 와불상의 발끝으로 가 예의를 표하는 모습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제서야 숙연해 하는 것을 목격했다.

금주의 주제

관광사찰도 수행도량

이같은 현상들은 전국의 각 관광사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찰예절을 모르는데 원인이 있다.

구경보다 '마음닦는 곳' 인식을

사찰도 가을 행락철 앞두고 선도계획 세워야

대부분의 절이 위치한 곳은 경치가 뛰어나고 산수가 수려하여 사람들이 즐겨찾는 공간이 되고 있다.

요즘들어 가족단위의 관광과 문화유적답사가 성행하면서 사찰은 본래의 조용함과 고요함을 잃어가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8백여 전통사찰중에서 50여개 사찰이 관광사찰로 분류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찰은 관광객들의 소음 풍기문란행위등으로 인하여 청정기도도량의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한 몸살을 앓고있다.

가을을 맞으며 산사를 찾는 인파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사찰은 이제 구경가는 사찰이 아니다. 수행도량의 면모를 되살려서 불교를 배우고 인식하는 공간으로 자켜가야한다.

절을 찾을 때는 불자들 스스로도 정숙한 옷차림으로 단정히 하고 스님들의 기도처 출입등을 삼가하며 불교유적을 신앙과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해당사찰도 포교용 책자와 비디오 상영등 불교와 친밀하게 호흡하도록 포교의 적극성을 보여주고 수행도량으로의 위상과 역사적 문화교실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신행수첩



◇마곡사 대광보전 앞에 위치한 고려후기 5층석탑은 상륜부에 풍마동(風磨銅)이라는 청동제로 된 상륜을 장식했는데 이는 다른 탑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이다.

법화경 향기어린 마곡사

보문사 내달 6일 구도의 길

단풍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국내의 유명한 심산유곡에 있는 고찰은 형형색색의 단풍과 어우러져 신심함양과 단풍속 추억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무엇보다도 사찰은 수승하고 보배로운 중생들의 귀의처란 점에서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생활의 활력소를 얻기에도 더할나위 없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에 서울 보문동 보문사(주지 황법준)가 10월6일 성지순례의 길에 오르는 곳은 충남 공주군 태화산 남쪽 기슭에 웅장하게 자리잡은 마곡사.

마곡사는 신라 선덕여왕때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개울이 가로지르는 사찰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사찰이다. 사찰내 건물로는 극락교를 사이에 두고 대웅전과 영산전, 천장의 무늬가 아름다운 대광보전, 강당으로 사용하는 홍성루, 요사채인 심검당이 ㄷ자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지순례단은 감지은니묘법연화경을 소장하고 있는 마곡사 답사에 이어 갑사도 참배할 예정이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02)953-0242

노래부르며 부처님 찬탄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어린이들의 사회참여가 눈에 띄게 확대된 가운데 부모들은 자녀들을 최고로 키우기 위해 학원으로 내모는게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기계소리(자명종)에 눈을 떠 기계를 익히려(컴퓨터등) 학원을 가고, 기계를 가지고 놀면서(게임기) 하루를 삭막하게 보낸다.

그렇게 메말라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법음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자.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국민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변성기 이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노래를 통해 불성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디션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불교동요와 일반동요 중 1곡으로 한다. (02)725-7527

윤달엔 옛부터 3寺 순례

법련사 청원 · 괴산일대 돌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올 을해년 음력 8월은 4년만에 돌아오는 윤달이다. 전통관습에 따르던 윤달에는 하루 삼사를 순례하면서 신심을 돈독히 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성지순례가 행해진다고 한다.

승보종찰 송광사 서울분원인 법련사(주지 현호)는 오는 29일(음 8.5) 윤 8월에 맞춰 삼사 성지순례를 떠난다.

충북 청원군 구룡산 현암사와 충북 괴산군 환희산 채운사·보타산 각연사로 떠나는 이번 성지순례는 가을 결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법련사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한다. (02)733-5322

사명대사 머문 천년고찰

두레 동화사 문화기행

대구 중심부서 20㎞쯤 떨어진 팔공산 한곳엔 천년고찰이자 조계종 제9교구본사인 동화사가 있다.

두레가 오는 24일 동화사로 문화기행을 떠난다.

지금의 건물은 이조 영조 8년에 중건된 것들로 대웅전을 비롯, 천태각, 봉서루, 천안문등 규모가 방대하다. 그밖에도 금당암, 비로암 등 속암이 있기도 하다.

동화사에서 8㎞쯤 떨어진 갓바위와 갓바위에서 동쪽으로 1㎞ 남짓 골짜기를 내리면 맞은편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선본암도 들러 수행도량의 청정함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02)712-5812

10대 성지 꼽히는 부석사

불교신행연 23~24일 답사

소백산 국망봉 줄기 봉황봉 중턱에는 천년고찰 부석사가 의연한 자태를 뽐내며 자리해 있다.

3천여명의 문도가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 교세가 널리 퍼졌다는 부석사에는 아직도 그 기운이 곳곳에 배어 있다.

신라시대 창건이후 고려시대에는 전국 10지에 꼽히는 명찰로서 역사의 생생한 발자취를 보여주는 유물이 가득하다.

부석사와 함께 소백산 남단 기슭에 자리한 용문사도 그 당당한 풍모와 고색을 자랑한다.

용문사는 법당인 보광명전을 비롯 대장전, 음향각등 거의 모든 당우들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특히 보물 제145호 대장전은 중앙부후면에 불단을 설치하고, 좌우에 회랑식 팔각윤장이 설비되어 그 안에 장경판을 넣어두고 불자들이 한번씩 밀면서 돌리게 하여 불공을 쌓도록 하는 특징을 띠고 있다.

파아란 가을하늘과 함께 흐르는 계곡의 청아함도 함께 만끽할 불교신행연구원의 9월 불교문화기행은 오는 23일~24일 1박2일 일정으로 치뤄질 계획이다. (02)587-6613

"홀로된 노인 · 장애인 우리 절로 오세요"

거제도 자비마을 대자원 영안스님 본사에 연락

'부모님 은혜는 천지와 같다. 부모를 두 어깨에 모시고 백년동안을 다니면서 갖가지로 공양해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잡보장경 제2권〉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사장아들을 두고도 관자촌에 누워있는 노인이 있고 탑골공원등 서울의 4개 공원에서 배회하는 노인만도 하루 1천5백여명이나 된다'는 본지 44호 '목어'란의 보도를 보고 경남 거제의 자비마을 대자원 원장 영안스님이 본사에 연락을 해왔다.

스님은 "대자원에 40여개 방사가 있다"며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 1백여명을 받아들여 함께 생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스님들의 노후 기도처로 개방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대자원은 납골당을 마련하여 임종까지 책임지고 있다며 주위의 외로운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있으면 연락을 바라고 있다. (0558)32-72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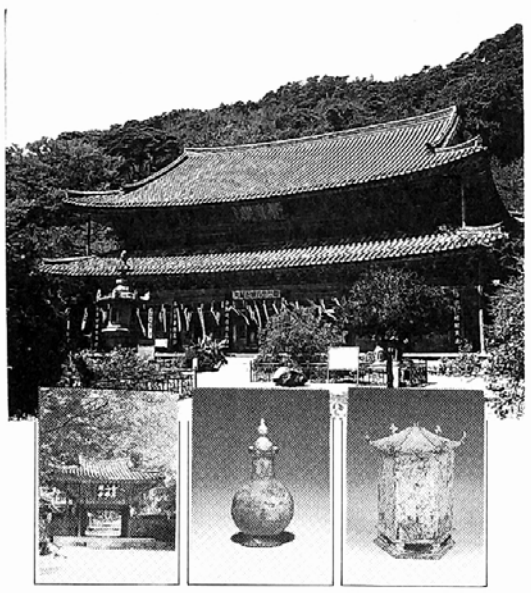
천년의 신비 화엄사에 출현
부처님사리 및 성보문화재를 찬탄하고 예경합시다

지난 8월 17일 지리산 화엄사에서는 부처님사리를 비롯하여 국보급 성보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성보문화재는 8세기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화재관리국의 중요 석조문화재 보수공사중 화엄사 西 오층석탑(보물 제133호)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은 석탑의 1층 탑신과 상층기단 내적심부의 원형 홈안에 금동뚜껑이 덮힌 청자 양이병이 발견되었고 그 속에 녹색유리 사리병 및 백색 영롱한 부처님 사리 22과와 신라시대 화엄경의 사경으로 추정되는 종이뭉치 등 모두 16종 72점의 국보급 성보문화재입니다. 이 성보유물은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 천년신비의 귀중한 성보문화재의 출현이라는 점에 그 의의는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화엄사에서는 9월 24일부터 2천만 불교인의 신심과 원력을 모아 부처님사리 출현을 찬탄예경하고 기도와 발심으로 그 공덕을 함께 회향하기 위한 100일 친견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참배와 동참의 선연으로 우리 모두의 뜻과 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995년 9월
화엄사 주지 국종열 합장



친견대법회

◈ 기 간:1995년 9월 24일~12월 31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입제일:1995년 9월 24일 오전 11시
◈ 장 소:지리산 화엄사 각황전

알립니다

친견법회 안내
각 사찰 및 신행단체의 단체참배시 차량진입 및 주차문제, 국립공원 입장권 문제, 친견시간 등의 편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단체참배시에는 사전에 화엄사 종무소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참배 안내
화엄사는 동시 수용인원 500명 정도의 공양 및 방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니 100일 친견법회 기간중에 기도를 원하시는 불자님이나 신행단체는 화엄사 종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화엄사 西 오층석탑 부처님사리 친견대법회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 엄 사 전화(0664)782-7600, 782-0015 · 전송(0664)782-7601





정계인사 '조계종 문두드리기' 분주

김윤환 · 박일 등 여야대표 월주스님 예방

민자당 김윤환 대표위원은 지난 13일 오전11시 조계종 총무원으로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교계 현안등 환담을 나눴다. 〈사진 왼쪽〉

민자당 대표 취임후 인사차 방문한 김윤환 대표는 "한통사태때 누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첫마디를 사과로 시작하여 불교계와의 화해를 시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월주스님은 종토세 · 토초세 면세, 사찰문화재 관람료 공원입장료 합동징수 법제화, 전사법 개정, 성보박물관 건립 등 불교계 현안에 대해 지원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김대표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스로 경북 도리사 신도라고 밝힌 김윤환 대표는 환담에 앞서 조계사 법당을 참배, 부처님께 삼배 올렸다. 이번 예방에는 과정출, 손학규, 박범진 의원과 윤원중 비서실장, 김욱 종교담당 직능국장등이 동행했다.

민주당 박일 대표도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환담을 나눴다. 월주스님은 이날 종토세, 토초세 등 불교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일대표는 "의회를 통해 당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장준익 사무처장, 양문희 의원, 이규택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3천7백종 식물 '호적' 만들어

전 경북대 대학원장 **양인석 박사**



"꽃과 나무도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물분류 및 생태연구를 위해 50여년을 바쳐온 양인석 박사(전 경북대 대학원장).

양박사는 지난 87년 우리나라 최초로 팔공산 양진암계곡과 고산골 계곡을 자연휴식공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자연휴식년제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기도 했다.

소학교 시절부터 식물앞에 놓인 분류팻말을 보고 외우는데 한없이 행복했다는 양박사는 지난 62년부터 우리나라 식물의 '호적등본'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 지금까지 약 3천7백여종의 식물목록을 작성했다.

또한 양박사는 지난 1월 자연휴식식년제 생태계 조사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오는 9월말에는 7백50여수의 시조를 모은 지산시조집(부제:꽃피는 이 강산)을 발간할 예정이다. 〈윤〉

"한국서 백제사연구에 전력"

고대 교환교수로 내한 **강맹산 연변대 교수**



"연변지역에는 돈화시에 중국 비구니스님이 세운 절이 유일한 사찰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성직자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교회와 성당을 여기저기 건립하고 있지만 불교계의 활동은 아직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18일 내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교환연구교수로 연구에 몰두중인 중국 연변불학연구회장 강맹산교수(연변대 조선문제연구소장)는 연변지역의 불교신행은 아직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내 불교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지난 30여년간 한국사연구에 정열을 기울여 온 그는 연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백제사 연구 보강을 위해 6개월 과정의 연구교수로 방문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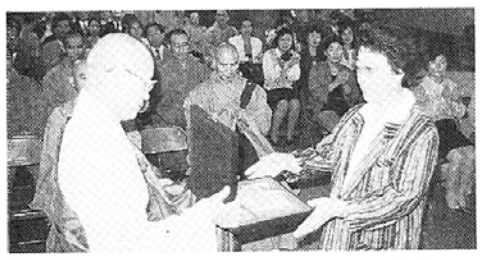
94년 5월 창립된 연변불학연구회는 발해 · 고구려 · 근대연변지역불교사 연구와 한국역대 고승들의 중국내 활동 연구, 한 · 중 · 일 불교교류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재〉



미술의 해 기념 불교 특별 기획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최 '95 미술의 해 기념 특별기획전'이 지난 13일 공평아트센타 2층에서 열렸다.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지난해로 14회를 치뤄낸 조계종 불교미술대전의 역대수상자들의 작품과 오늘날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최근작이 한자리에 총망라됐다. 이날 전시회에는 설정(중앙종회) 원산(교육원장) 자월(태고종 총무부장) 법타(총무부장) 등광(도선사 주지) 청화(실천승가회 공동의장)스님 등 2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조계종 개혁불사 유공자 시상식

지난해 조계종 개혁불사에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14일 오전10시30분 조계종 총무원 청사 1층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날 표창을 받은 단체와 개인은 선우도량 실천승가회 전국승가대학인연합 우리는 선우 한마음선원 신도회(사진) 재가불자연합 능인선원 신도회 동국대 석림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 등 17개 단체와 도각스님(사자암 주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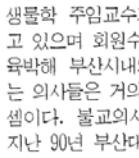
게시판

▲오계파지운동지도자 수련대회=오계파지운동국제본부(총재 인환스님)는 오는 22일~24일 2박3일간 강원 양양 동국대 수련장에서 제2회 오계파지운동 불교지도자 수련대회를 실시. (02)538-5523

▲개원법회=마하연 부령포교원(원장 종연스님)은 오는 20일 오전10시30분 개원법회 및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한다. (032)513-5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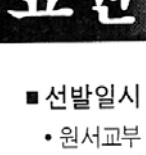
▲전방견학=천태종 성룡사 청년회(회장 이재우)는 10월8일 충원사, 도피안사, 백마고지 등 전방지역 견학을 실시. (02)496-3839

미주지역 사찰순회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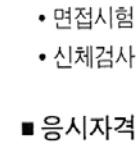
서암스님(전 조계종정)은 월간 정토 미주지사 초청으로 도미, LA 관음사와, 시카코 불타사, 뉴욕 정명사 등에서 '인간성회복을 위한 선'을 주제로 법문하기 위해 지난 10일 출국, 24일 귀국한다.

연구원 사단법인 인가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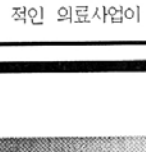
월탄스님(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6일 연구원 설립 1년 2개월만에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평화운동계획 유엔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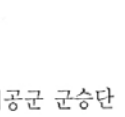
서경보스님(일붕선교종 종정)은 UN전권대사로서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 세계불교법왕청의 세계평화운동계획을 보고한 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대 등 3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위해 20일 출국한다.

수재의연금 5백만원 기탁



락혜대정사(진각종 통리원장)는 지난 6일 수해지역 이재민 돕기위한 수재의연금 5백만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전달했다.

불교사회복지협회 총회



진철스님(불교사회복지협회회장)은 오는 22일 오전10시부터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21세기 불교복지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이날 불교사회복지협회 총회를 갖고 임원진도 개편한다.

조계종 기획실장 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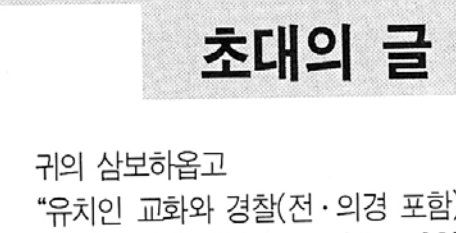
헌응스님(선우도량 사무총장)이 지난 12일자로 조계종 기획실장에 임명,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조계종 개혁회의에서도 기획실장직을 맡았던 스님은 지난 71년 해인사에서 종성스님을 은사로 득도, 현재 월간 '해인'지 주간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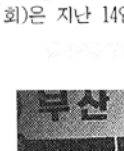
북경대와 자매결연 협의

송석구 총장(동국대)은 오는 20일 자매교인 중국 중앙희극학원 개교 45주년 기념식과 북경대학과 자매결연협의차 지난 19일 출국했다. 이번 방중길에는 문화예술대학 장한기원장, 영화배우 신성일씨, 연극인 백성희씨 등이 동행한다.

'북한동향 · 통일전망' 특강

정용길원장(동국대 행정대학원)은 지난 14일 오후8시 동국





관 L101강의실에서 단국대 이사장 김학준박사를 초청, '북한의 최근 동향과 통일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인쇄의 날 기념 · 시상식

박총일회장(대한인쇄문화협회)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쇄문화회관에서 제7회 인쇄의 날 기념식 및 제11회 인쇄문화상 시상식을 가졌다.



김충렬교수 초청 '중용' 특강

김종규회장(삼성출판사)은 지난 19일~10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삼성출판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김충렬고려대 대학원장을 초청, '중용' 특강을 실시.

'명성황후시해'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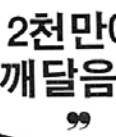


김윤환씨(영광도서 대표)는 26일 오후6시 30분 영광도서 사랑방에서 '운현궁'의 저자 줄리에트 모리오(프랑스 여류작가)를 초청, 명성황후 시해 1백주년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

'선과 정신분석' 특강

이동식박사(동북신경정신병원장)는 10월 17일 오후 3시부터 조계사불교대학에서 '선과 정신분석'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신도회 부회장 · 사무국장 선임



류진수회장(부산불교신도회)은 지난 13일 월례 이사회를 열어 우학수 사무국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이종판 사무처장(본지 부산지사장)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인사

중앙승가대학 △총무처장 태원스님 △불교학과장겸 신문사주간 정인스님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 보각스님 △총무국장 혜원스님 △기획과장 선법스님

병든 이웃 살리는 '자비 인술'

무료 순회진료 · 불교병원 설립 추진

탐 방 **부산불교의사회**

'인술로 인간방생 병든이웃 웃음피게 하자'는 슬로건 아래 부처님 당시부터 높게 강조되어 오고 있는 구병(求病)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광역시불교의사회(회장 오양효)는 무료진료등으로 철저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93년 1월, 50여 불자의 사들이 주축이 돼 창립한 불교의사회는 초대회장 한동대(신경정신과)씨에 이어 현재 2대 회장으로 오양호 부산의대 미생물학 주임교수가 소임을 맡고 있으며 회원수가 1백여명에 육박해 부산시내의 내노라 하는 의사들은 거의 망라돼 있는 셈이다. 불교의사회의 탄생은 지난 90년 부산대학병원법우회 창립과 법당마련, 이후 백병원, 보훈병원, 시립병원법우회가 각각 조직되면서 불자의사들의 자연스런 결성동기로 빛을 보게 되었다.

불교의사회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타종교에 비해 보다 대승적인 의료사업이 부진한 실정을 주시하고 윤초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해 의료봉사단을 결성했다. 의료봉사는 의료봉사 지정병원 및 의원을 지정하여 치료시는 진료비의 50%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동회 회원은 매월 1회씩 장소를 선정하여 순회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 부산불교의사회 창립법회 모습

불교의사회는 또 의료봉사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불교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부산불교신도회를 비롯한 모든 신행단체들과 병원설립을 위한 협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회장 오양효 교수는 "불교의 사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유마거사의 '중생들이 아프므로 나도 아프다'는 한마디는 대표적인 보살정신을 나타내는 경구라며 인간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타종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설립으로 가시화되어 있으나 불교는 그 노력의 흔적이 아쉽다"고 말했다. 오교수는 또 불교의료계는 의료부재의 현실에 놓여 있다면서 십자가 밑에 불자나 스님들이 병마에서 구제받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을 인식해 하루빨리 불교병원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회원들의 병원설립을 위한 원력은 2개월에 한번씩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의 법회와 지난 7월에 창간호를 낸 '부산광역시 불교의사회 소식'지에 담아내고 있으며 회장단 이하 총무, 재무, 학술, 기획, 홍보, 감사 등 조직정비로 향후 원력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다.

박병근 기자

민족의 불교! 국민의 군대!

군승 장교 요원 선발

회색 법의와 푸른 계복을 입고 구슬땀을 흘리며 군포교에 정진하고 있는 육해공군 군승단에서는 넘치는 신심과 무한한 포교의 장인 군불교에서 함께 할 군승 요원을 모집합니다. 군승단은 '구도', '전법', '호국'의 사명 아래 전후방 각지에서 불법홍포와 호국호법의 염원을 차곡차곡 쌓아온 지 어언 27년이란 세월 속에서 끓어오르는 젊은 열정을 가진 군승으로의 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600여 년 동안 민족과 애환을 함께 하며 이어온 우리 불교는 미래의 세계를 이끌어갈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1968년 타종교보다 뒤늦게 시작된 군불교는 젊은 불제자 포교를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여 한 해, 한 해 힘찬 도약의 길을 닦아오고 있으며, 1995년에는 드디어 〈군승 80명 증원〉이라는 숙원을 이루어 21세기의 밝은 청사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포교자, 구도와 호국을 통한 현대적 전법자, 장병들과 함께 하는 우정어린 동반자입니다.

불교의 개혁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젊음의 전당, 군포교의 전당에서 불법홍포의 수레바퀴를 함께 밀고 갈 동반자를 모집합니다.

■ 선발일시

- 원서교부 / 접수
  95. 9. 22 ~ 10. 6 육해공군 군승단
- 면접시험 : 95. 10. 16 (월) 14:00
- 신체검사 / 합격자발표 : 추후 통보

■ 응시자격

1.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2년(학사학위 이상:94년도 졸업생까지) 경과하고 포교활동에 원력이 있으신 분
2. 일반 4년제 대학(학사학위 소지)을 졸업한 조계종 스님으로 군포교 활동에 원력이 있으신 분

-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임관시 연령 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분

※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02)720-7060 / 육해공군 군승단(02)749-864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불기 2539(95)년 9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초대의 글

귀의 삼보하옵고

"유치인 교화와 경찰(전 · 의경 포함) 포교의 활성화를 위한 **종로경찰서 경승 기원 법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사찰 스님 및 불자님들은 두루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일시 : 2539년('95년) 9월 28일 (목) 오후 4시
장 소 : 종로경찰서 대강당
법 어 : 포교원장 정락스님
※ 김흥국, 남진 씨 등도 참여하여 축하할 예정
주 최 : 종로경찰서 경승실
주 관 : 종로경찰서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포교원, 경승단
※ 경찰 법우회와 경승 협의회 합동 창립도 갖습니다.

종로경찰서 경승실장 도 종
종로경찰서 경승회장 오 원
종로경찰서 경승부회장 대 련 합장
종로경찰서 경승총무 금 원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 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포항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856-3280

소리에 묻혀 '나' 잊고 산 65년

산문밖의 禪

경기민요 무형문화재 묵계월 씨



"내가 소리를 이끌어 왔는지 소리가 나를 몰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65년이 지났군요. 후회없이 지내 온 지난 날들이라 뭐 그리 대단할 감회도 없구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무대에 서기가 더 떨리고 어깨가 무거울 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민요·잡가등의 소리에 이끌려 왔는지 자신이 소리의 삶을 이끌어 왔는지조차 모르며 살아 왔다는 묵계월(75·중요무형문화재 57호 기능보유자)씨가 지난 16일 오후7시 호암아트홀에서 65년 소리인생을 정리하는 무대를 가졌다. 묵씨는 10살 때까지 무엇에 흘린듯 흥얼흥얼 노래부르기를 좋아했고 11살 때는 기어코 수양어머니에 이끌려 소리 배우는 길로 들어섰다. 그후 65년이 지난 것이다.

"천상 나는 소리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다른 기악이나 뭘 좀 배워 보려고 해도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저 이게 내 전부이거니 하며 소리만 따라 했다. 이번 무대로인해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고 싶었던 것이 묵씨의 속마음이었던 것이다.

"소리의 길이 끝이 없는데 인간의 생은 끝이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주어진 생명이 있는 한 소리를 할 것입니다. 내 생명이 끝나도 누군가 또 그 소리의 길을 이어갈 것이니까 가능한 내가 더 길게 그 길을 잡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대에 오를 때면 가슴이 떨려 '청심환'도 먹는다는 묵씨지만 막상 장고반주에 맞춰 경기민요나 잡가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잊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묵씨는 "소리꾼은 소리 속에 들었을 때 가장 편안한 겁니다"라는 말로 스스로의 경지를 표현했다. '소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묻자 묵씨는 잠시 눈을 감더니 짧게 대답했다.

"내가 그냥 소리가 되어 버리는 거야."

악보도 녹음기도 없던 시절, 한 소절을 배우고 돌아와서는 다 잊어 버리고 살았어요."

묵씨는 소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몽당치마의 어린 시절이었으므로 피를 토하고 목이 붓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웅골차게 자신이 택한 길을 달려 온 것이 지금은 여간 자랑스런 일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열일곱 여덟살 때쯤에 주위의 어른들이 득음(得音)을 했다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그러나 어디 가당한 일이었겠습니까. 겨우 7~8년 소리 배워서 득음을 했다면 너무 설익었다는 뜻일거에요. 장단고저를 자유자재로 쓴다는 것이 득음인데 그 경지는 아직 아무도 못 다다른 곳입니다. 다만 칭찬하느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지요."

묵씨는 어쩌면 스스로 득음의 경지를 부정하며 끝없는 소리의 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아직 조금도 식지 않았음을 역설하는지도 몰랐다. 묵씨는 공연을 앞두고 일부 언론들이 '고별무대' '결산무대'란 말을 썼던 것을 섭섭해 다음날 다시 선생님께 혼찌검이 나면서 한 소절을 더 배우며 12잡가와 경기민요에 '삼설기'까지 목을 통해 버린 묵계월씨.

특히 묵씨는 '삼설기'를 전수받은 유일한 예인이다. '삼설기'란 송서부의 일종으로 글을 읽는듯이 읽어 나가되 음정과 박자가 있어 노래에 가깝다. 그러니까 글 읽기와 노래가락의 중간쯤에 있는 것이 '삼설기'인데 이것은 배우기가 매우 까다로와 전수자가 흔치 않다.

"뭐든지 쉬운 것만 찾아 배워서야 쓉니까. 어려운 것도 배우고 나면 쉬운 것입니다. 본래 어려운 것은 없어요. 다다르지 못하면 어렵고 다다르면 쉽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다르고 나서 보면 다 쉬운 겁니다. 이 이치가 어디 소리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무대에 올라 소리하는 사람이 바로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도 쉬운' 자리까지 오르지 않으면 안된다. 자신 있게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자신이 소리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음악이란 길고 짧고 높고 낮은 것의 이치에서 비롯된다. 그 장단고저에 부여된 하나의 질서가 곧 한 가락의 노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네가지 요소가 부리는 조화속이란게 밑도 끝도 없이 다양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음악은 시대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또 잊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다.

여생을 후학양성 위해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이름을 잃지 않고 맥을 지켜 온 것 중의 일부가 경기민요이고 경기잡가입니다. 나는 그것을 팔자로 타고나서 이렇게 평생 부르고 살았고요. 따지고 보면 아주 초라한 이승 인연의 실오라기일 뿐이겠지만 한 평생을 한 일에 몰두해 살아 온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아직 마무리를 얘기하기에는 열정이 너무 많이 남은 묵씨는 "내게 주어지는 무대가 있다면 죽는날까지 서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자신의 길이 아직 창창히 남았음을 암시하는듯 했다.

10여명의 문하생들과 동료들이 한 무대에서 가을밤을 훈훈히 장식한 묵계월씨의 '끝없는 소리의 길' 공연은 이제 묵씨에게 아쉬움도 두려움도 없는 소리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문득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생각납니다. 이문원선생님 김윤태선생님 최정식선생님의 모습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제가 그분들이 남긴 길을 이만큼 이었다는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서일까요."

아직 더 긴 여정의 소리 길을 걸어야 할 묵씨는 자신이 취입한 노래를 들으며 "여기는 내가 안 부른 것같이 잘 됐구만" 하곤 한다. 썩 맘에 들게 잘 된 부분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묵씨는 그 잘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부분이 바로 내가 소리가 되어버린 곳이여."

"피 토하는 고통 있어야 제대로 된 소리 나와요"
'得音경지는 끝없는 길'… 내가 곧 소리될 때 도달

임연태 기자



삽화·이기선

살생이란 말도 하지 말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㊸

살계(殺戒)

남을 시켜 생명 죽여도 큰 죄

원효는 살생계에 대하여 상품 중품 하품의 3품으로 나누어 경중을 밝히고 있다. 상품의 중생이란 부모와 수행의 지위가 확정된 지상의 보살과 모든 번뇌를 끊어서 배울 것이 없는 아라한을 일컬는다. 만일 이 상품을 살해한 자는 무거운 죄와 오역의 두가지를 범한 것이다. 만일 이 과위를 얻는 이를 두고 말한다면 열반경에 상·하의 두 곳의 글이 같지 않으니 첫글에 의하면 기바가 아세사왕에게 말하기를 '네가 두가지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으니 수다원과를 얻은 아버지 빔비사라왕을 죽였음을 일컫는다.

중품은 정해서 말할 수 없는데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한다. 중품을 죽인 자는 오직 무거운 죄를 범한 것이고 역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또 하늘을 중품으로 보는 것을 대승에 한하여 그런 것이며 소승인 경우에 하늘을 죽인 자는 오직 가벼운 죄 즉 경구죄를 범한 것일뿐 무겁고 큰 중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항상 참회하는 생활

만일 사람들이라 해도 삿된 사상을 가진 자를 죽이는 경우, 대승 지상의 대보살이라면 죄가 없고 도리어 복이 될 뿐이지만 만일 새로 배우는 보살이라면 가벼운 죄를 범한 것으로 되고 하늘이나 사람 아닌 것을 죽이면 참회함으로써 죄를 벗는 타죄(墮罪) 곧 바일제죄를 범한 것이 되며, 축생을 죽인 경우에는 제 6취인 돌길라죄를 범한 것이 된다라고 밝혀 살생하는 대상에 따라 상·중·하품 세 종류로 나누어 살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

스스로 죽이는 범계 가운데 다섯가지 구별이 있으니 죄를 이름에 가볍고 무거움과 대소승의 같고 다름이 있다.

첫째 상대가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고서 저질렀으면 대·소승이 다 같고 중계를 범한 것으로 본다. 그것은 그 마음과 대상이 다 중계에 상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 것인지를 의심하여 저질렀다면 소승의 경우 〈승기율〉에 의하면 중죄를 범한 것이고, 〈사분율〉에 의하면 투란차를 범한 것이다. 왜냐하면 〈승기율〉은 살해의 대상에 대해 반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며 〈사분율〉에서는 대상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의심한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대상에 대하여 이 두가지 경우에 다같이 의심했다면 이상의 두가지 죄를 거듭 말한 것으로 된다. 대승의 경우에는 중계를 범한 것으로 본다.

남을 시켜서 살생하는 법계에 있어서 소승의 경우, 만일 나를 위해 다른 삶을 시켜서 살생을 범하였으면 중죄를 범한 것이며 남에게 너를 위해 사람을 살해한다고 가르쳐서 살인을 하였으며 투란차죄를 범한 것이니 비록 정통으로 전하는 계문은 없지만 도둑질을 한 계에 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승의 경우, 나를 위해서 범하였거나 남에게 너를 위해 살인을 하라고 가르쳐서 살인을 했거나 다같이 중계를 범한 것이다. 남을 시켜서 3독심으로 살해를 범하였다면 대승·소승의 경우가 동일하게 중죄를 범한 것이다.

죽음을 유도하는 말

찬탄하여 죽게하는 것에는 셋이 있으니 첫째는 선행을 닦는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너는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어서 죽으라. 만일 오래 살다보면 원수와 허물을 지어 나쁜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짓게 될지 모를 일이 아니겠는가? 하여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나쁜 짓을 하여 죄를 조금 지었을 때 지금 어서 죽어라. 만일 살다보면 나쁜 업을 더 많이 지어 죄만 더 커질 것이 아니냐? 라고 하여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곧 죽었음을 말한다.

셋째는 노인과 병든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오래 살면 오래도록 괴로울 뿐이니 차라리 빨리 죽어서 그 괴로움을 여의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하여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죽었음을 말한다. 칭찬하여 죽게 하면 그 죄는 중죄이니 대승이나 소승이나 다 같이 중죄를 범한 것이다.

살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함은 살인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뻐하는 나의 마음을 보고 그로 인하여 살업을 짓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살생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윤달 수의는 준비하셨습니까?"

고품질의 수의를
시중가격의 절반으로
보급합니다

불교인의 장례는
불교의식에 따라
불자들의 손으로

대한불교 연화회
장의부(대) 732-9618
호출 012-220-1631 휴대폰 011-335-9614
불교 장례에 관한 모든 것을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국책사업 연구원 및 영업사원 모집

한일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창의력과 불심(佛心) 있는 인재를 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

모집부문	학 력	제출서류	모집인원
전기, 전자, 소재 computer(S_W, H_W) -연구직, 영업직	각 부문 고졸, 대졸, 석사, 박사, 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최종학교성적 증명서(신입에 한함) 각 1통	신입 ○○명 경력 ○○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전형방법
서류전형 후 면접(면접일자 개별통지)

3. 제출일자
~ 1995년 9월 25일까지(우편 소인 날짜 유효)

4.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12-2 ㉾ 1.0-410
해운창만청 별관 1층 105호
Tel. 744-1109 / Fax. 742-1109

한일과학기술 연구소
마하반야바라밀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보살기(氣)띠부적 메달
천운을 만나는 인연 부적

띠부적이란?
인간은 누구나 12간지에 따라 12년을 하나의 주기로 운명의 변모를 합니다.
12년마다 되돌아오는 자신의 운명지수의 변동을 인연보살 천지인의 氣로써 천운의 길로 돌려놓는 불가사의한 부적입니다.
각 띠별로 자신의 궤도를 미리 알아 매사를 성사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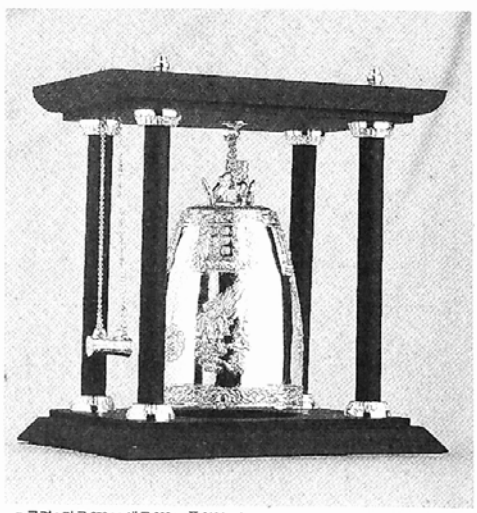
■ 띠부적메달견본
• 앞면 (보살상)
• 뒷면 (띠별12지상)

(子)쥐띠(인월보살) 甲子生, 丙子生, 戊子生, 庚子生, 壬子生
(丑)소띠(천수보살) 乙丑生, 丁丑生, 己丑生, 辛丑生, 癸丑生
(寅)범띠(대륜보살) 丙寅生, 戊寅生, 庚寅生, 壬寅生, 甲寅生
(卯)토끼띠(수월보살) 丁卯生, 己卯生, 辛卯生, 癸卯生, 乙卯生
(辰)용띠(관세음보살) 戊辰生, 庚辰生, 壬辰生, 甲辰生, 丙辰生
(巳)뱀띠(관자재보살) 己巳生, 辛巳生, 癸巳生, 乙巳生, 丁巳生
(午)말띠(여의륜보살) 庚午生, 壬午生, 甲午生, 丙午生, 戊午生
(未)양띠(대세지보살) 辛未生, 癸未生, 乙未生, 丁未生, 己未生
(申)원숭이띠(십일면보살) 壬申生, 甲申生, 丙申生, 戊申生, 庚申生
(酉)닭띠(군다리보살) 癸酉生, 乙酉生, 丁酉生, 己酉生, 辛酉生
(戌)개띠(정취보살) 甲戌生, 丙戌生, 戊戌生, 庚戌生, 壬戌生
(亥)돼지띠(이이타불) 乙亥生, 丁亥生, 己亥生, 辛亥生, 癸亥生

■ 순은 (99.9%) 약7돈(26.25g)
■ 가격 ₩ 48,000 (세인 포함)

기획 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수신자부담)

신라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행운의 황금종
국보 제29호 에밀레신종



■ 규격 : 가로 258 × 세로 268 × 폭 209(mm)

신비롭고 영험 있는 에밀레종!
종소리가 맑고 청아하여 그 긴 여운은 영원으로 이어져 고뇌하는 이에게 희망과 마음의 평온 그리고 행운을 드릴 것입니다.

■ 보급특가 ₩ 148,000

기획 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수신자부담)

"도덕적 교리, 행동운동 전환 필요"

14·15일 '관용과 평화' 주제 '95 종교지도자 세미나

종교간 화합 통한 남북교류 7개방안 제시
'조화로운 세상'에 사회 참여 초점 맞춰야

광복 및 분단 50주년과 유엔이 정한 '세계 관용의 해'를 맞아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윤신부)와 문체부가 공동주최한 '관용과 민족공동체 평화' 주제의 95 종교지도자 세미나가 지난 14일, 15일 서울 한국의집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렸다.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민족종협 등 각 교단 지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종교의 역사적 사명과 남북간 종교 교류, 종교간의 화합과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교계 현안과 역할이 깊이있게 논의됐다.


◇보광스님


◇윤이흠교수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윤이흠교수는 '한국종교 그 역사적 사명'이란 발표문을 통해 한국종교가 △도덕적 교리의 제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든 종교가 참여토록 유도하고 △종교운동 참여자에게는 구체적인 영광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한국종교가 △정보사회에 뒤져 문화지체현상에 빠졌고 △다종교사회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교단운영과 지성운동을 조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덕운동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종교의 성역화로 종교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윤교수는 "가치관의 사회적 실체이며 가장 강력한 사회적 동원력을 지닌 조직이 종교"라며 "종교의 사회적 책임은 종교가 선포하는 교리가 아니라, 그 선포에 담긴 사회에 대한 약속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광스님(동국대교수)은 '이상적인 종교의 사회참여'를 통해 "종교의 사회참여도 과거 추진형의 물질적인 봉사에서 한 차원 높고 종교의 본질에 가까운 선진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3·1운동 당시 종교인들의 단합처럼 남북통일이란 과제 앞에 모든 종교간의 조화와 관용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신학대학 김명혁교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배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에 주력 △교단간 협력을 통한 단일창구 조성 △물질적 도움도 겸할 것 △북한 종교의 재건을 간접적으로만 지원 △해외 한인 종교지도자와의 협력 강화 △종교인간 만남의 활성화 등 바람직한 남북간 종교교류의 7가지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재경 기자

'자연=내 몸' 깨달을때 환경위기 해결

불교환경교육원 3차 생명운동 심포지엄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의 3번째 생명운동아카데미 심포지엄이 열렸다.

'현대과학사상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환경문제는 환경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며 생활양식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서구생태주의 사상'에 이어 마련된 기획 심포지엄. 생명과 환경운동 이념의 과학사상·문명사적 의의를 반성적으로 조명한 이번 심포지엄은 환경문제를 새로운 문명사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메시지로 파악했다.

이날 환경과자연철학연구소 최종덕소장은 '과학과 신화의 이중주'란 발표문을 통해 환경문제와 연관해 △서구과학의 인식의 한계성 △서구의 기계론과 결정론 △분석주의와 환원주의 등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환경운동의 실천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서울대 장회익교수는 '생명문제의 문명사적 의의'를 통해 생명 개념을 개체생명과 온생명(각단계의 개체생명들로 구성된 유기적 체계 전체), 보생명(개체생명을 제외한 온생명의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고, 인간과 문명의 조화를 강조했다. 장교수는 "병적 양상을 보이는 현대 물질문명은 증폭적인 악순환에 놓여있다"면서 "온생명이 바로 내 몸과 생명임을 깨달아 나갈 때 이러한 병리가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속 한국불교 위상 조명

UCLA대 한국학연구소

미 UCLA대학 한국학연구소는 지난 15일~19일 同대학에서 버스웰교수등 세계적인 불교석학 20여명을 초청,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의 한국불교의 위상'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열었다.

한국불교가 동아시아 불교에 미친 영향을 조명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측에서 '일본의 정토진종 창시자, 친란의 사상에 미친 신라스님 경흥의 정토사상'을 발표한 길희성교수(서강대 종교학과)와 정병조(동국대 국민윤리학과) 심재룡(서울대 철학과)교수가 참석했다.

유형민속자료 분류안 소개

'민속학연구' 제2호

국립민속박물관은 최근 '일제하 민속학 연구의 재조명'이란 주제하에 기획논문 3편과 연구논문 8편을 싣고, 부록으로 '유형민속자료기능분류안'을 소개한 〈민속학연구〉 제2호를 발간했다.

특히 유형민속자료기능분류안은 전국 주요 국공사립민속박물관 관계자와 민속전문가들의 협의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박물관 유물 전산화 및 소장민속유물의 체계적 정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이 낫다가 도로 마찬가지 돼

문 어느 때 본란에서 저와 비슷하게 신병을 앓고 있는 분이 질문한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의 답변을 읽고 나름대로 믿고 맡기는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악을 안 먹고도 꽤나 차도가 있어서 '옳다 됐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로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여쭙기 부끄러우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효순·서울 종로구 동숭동〉

답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고 액난이 닥치는게 모두 과거에 지은 결과입니다. 지금의 나 자신은 과거의 인연따라 뭉치고 뭉친 결과라서 모든 게 다 내 배냥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나를 형성시킨 것도 그 배냥에 들어있고 내 앞에 닥치는 일들도 다 그 배냥 속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배냥을 컴퓨터라 해도 좋습니다. 과거에 입력된대로 경계에 부딪히면 마치 키보드를 두드린 것 같이 자료가 튀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른 자료가 나오게 하려면 아니, 아예 지워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몽땅 내려 놓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일체는 주인공 거기서 나온 것이니 살던 죽던 되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잘 믿지 못해서 긴가민가 한다면 입력된 게 잘 지워지겠습니까? 이왕 믿고 맡길 양이면 아주 절실하게, 갈광질광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고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급할 때는 좀 하는 듯 하다가도 급한 불만 끄고나면 또 그냥 흐지부지하고 맙니다. 지우려면 깨끗이 지워야 하고 녹이려면 흔적없이 녹여야 하고, 뽑으려면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그냥 흐지부지해지고, 뜸해지면 결과도 그렇겠지요. 나무를 비벼서 불을 얻을 양이면 불이 붙을 때까지 비벼야지 비비다 말면 연기만 나고 불은 일지 않습니다.

부처님·보살님 이름이 많은 이유

문 비로자나 청정법신불, 석가모니불은 알겠는데 노사나불은 어떤 부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부처님·보살님의 명호가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은지 궁금합니다.

〈서장석·충남 천안시〉

답 부처님, 보살님만 이름이 많은 게 아니라 처사님도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노릇 할 때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고 아들 노릇 할 때는 또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회생활 하면서 온갖 이름이 많고 많지요. 부처님 이름도 그와 같습니다.

굳이 용어풀이에 집착하신다면 불교사전을 찾아 보실 일입니다만 이름 따라서 부처님이 그렇게 많이 계시다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명호가 만가지라도 부처님은 한자리입니다. 또 누구나 깨우쳐 성불하면 부처님과 한마음이지 둘이 아닙니다. 수만명이 깨우쳐도 마음도리에서 부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따로 계시지 않는다,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서 공부가 잘 안됩니다

문 제 딴에는 마음공부를 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 할 일도 많아서 전념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주상·강원 삼척시 교동〉

답 이 일 저 일 무슨 일이 그리도 많습니까? 또 이 일 저 일 하면서 마음공부는 따로 하는 것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행·주·좌·와 그대로가 다 공부요 일체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닌게 없고, 다가오는 경계 어느 것 하나라도 공부재료가 아닌 게 없습니다.

누누히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일이 많아서 공부가 끊긴다니 일과 공부가 어찌 둘이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일 다하고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일 속에 공부가 있고, 공부 속에 일이 있습니다. 이 공부가 마음공부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으면서 어느새 공부와 일을 둘로 보고 있군요.

이 몸 쓰레기 어떻게 쓸어낼지

문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몸뚱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쓸어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득룡·광주시 금남로〉

답 흔히 말하기를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쉽고 간단한 표현이지만 뜻에 따라서는 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황천길일 수도 있고, 극락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이 따로 어느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한 생각 내시니 아촉불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는 것입니다. 고로 이름일뿐 마음내는 대로이며 모두 한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내 마음 속에 뭉쳐 놓으며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쓸어내느냐고 하시는데 나를 이끌고 가는 것도, 돌부리에 채어 무릎 깨지는 것도, 육신 벗을 때 덜 익은 콩이 아니라 농 익어서 툭 건드리기만해도 콩깍지가 짝 벌어지는 그런 도리도 모두 한마음 공부도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리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생에도 진화해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고 자재천에 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된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김용사

천 왕 문

四大天王威勢雄
(사대천왕위세웅)
護世巡遊處處通
(호세순유처처통)
從善有情貽福薩
(종선유정이복음)
罰惡群品賜災隆
(벌악군품사재륭)

사대천왕의 위엄 크고도 웅장하여라
온 세상을 지키시고 모든 곳에 나투시며
세상 사람 착한 일엔 복을 주고
악한 무리에게 벌을 주어 재앙을 내리도다

해설 천왕문은 사천왕문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다. 사천왕문은 글자 그대로 사천왕(四天王)을 모신 문이란 뜻이다.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수호신장들이며 각각의 이름과 들고 있는 물건들이 다르다. 동쪽의 지국천왕(持國天王)은 칼을 쥐고 있으며 서쪽의 광목천왕(廣目天王)은 탑을 들고 있다. 남쪽의 증장천왕(增長天王)은 용을 잡고 있으며 북쪽의 다문천왕(多聞天王)은 비파를 들고 있다.

이렇게 사방을 수호하는 신왕들 대신 금강역사상을 조성해 금강문의 역할로도 사용하지만 대개 금강문은 천왕문에 이르기전에 따로 세우는 것이 관례다. 금강문은 금강역사들을 모신 문이다.

어쨌거나 천왕문은 사찰 경내가 그만큼 신성하고 엄숙하다는 것을 표방하는 역할을 하는 문이다.

또 사바세계에서 갖고 온 번뇌망상과 탐욕, 분노 등을 모두 사천왕에게 조복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서라는 경계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천왕은 다만 사찰의 파수꾼이 아니라 인간세계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선(善)의 수호신장이란 뜻이 이 주련에는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다분히 권선징악의 논리에 부합된 이 싯귀는 천왕문을 지나며 새기는 순간마다 속진의 번뇌가 씻어질 것 같은 매력을 주고 있기도 하다.

〈안동 경안중 교사〉


◇사방의 수호신을 봉안한 천왕문과 주련.

깨끗한 마음 들게하는 관문

경 축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국씨 전 영양소(한국총판)
전화:(02) 929-0211~4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信心이 돈독한 佛子로서 약간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확실한 수입이 보장된 국씨전영양소 사업에 동참할 한분을 초빙합니다. Mr. 박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영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옛것 보존은 문화창조 원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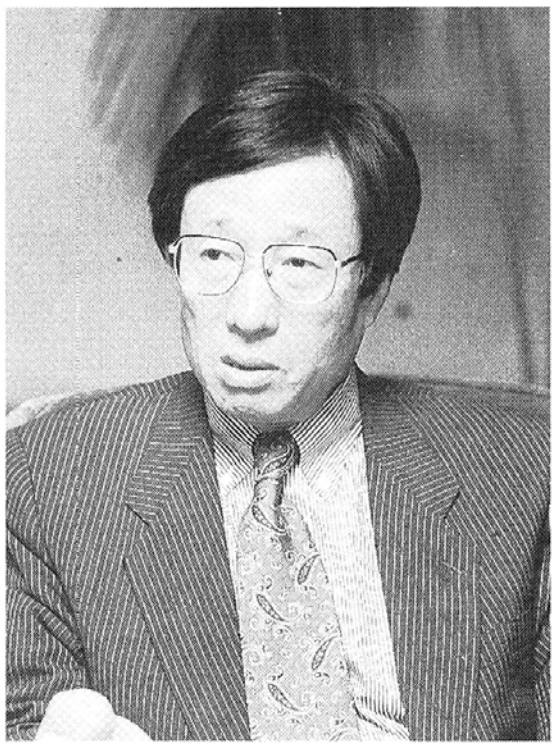
개관 50돌 맞은 국립중앙박물관 정 양 모 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1일로 개관 50주년을 맞았다.

45년 9월 경복궁에서 처음 개관한 국립박물관은 한국전쟁당시 2만점의 유물을 부산으로 피신시켜야 하는 수난을 겪었다. 그후에도 4차례나 이삿짐을 싸고 남산(53년), 덕수궁 석조전(55년), 경복궁(72년), 구 조선총독부 건물(86년)로 옮겨 다녔던 서글픈 역사를 안고 있다.

개관 50돌을 맞은 국립박물관은 지난 날을 되돌아 보는 '국립박물관 개관 50주년 발자취전'과 학술강연회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구 조선총독부 건물해체와 용산에 마련하는 새 박물관 청사 준비로 여념이 없는 정양모 관장을 국립박물관에서 만났다.



약력
- '93년 제6대 국립중앙박물관장
- '80년 국립경주박물관장
- '88년 한국미술사학회장
- '34년 서울대 사학과 졸
- '82년 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50년간 4차례 이삿짐

—국립박물관의 발자취는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지금도 일제가 지은 건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건물은 돌을 붙인것으로 복원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 박물관 청사는 용산가족공원에 세워집니다. 오는 10월경 설계자가 선정되고 2천년대 초에는 처음으로 제집을 갖게되어 마지막 이사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난 50년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립박물관은 그동안 어떻게 변화 했습니까.

▲우선 외형적으로 '45년당시 5만9천여점에 불과하던 소장 유물이 현재 12만여점으로 거의 2배이상 불어났습니다. 관람객수는 4천5백여명 이었던것이 한해에 5백만여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관람객들이 안내판을 꼼꼼히 읽어 관람속도가 늘어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물 대부분은 불교유적으로 박물관에도 불교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불교유적은 불자들에게는 곧 신앙의 대상임에도 전시유물로 되어있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유물 가운데 시각적인 것은 모두 불교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가 불교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교유물은 아쉽게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탑이 도굴당하고 불상이나 탱화가 도난당했습니다.이나마 박물관에 옮겨 놓지 않았다면 모두 없어졌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불자로서 불교성보가 전시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유물을 과학적으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건립하는 박물관에는 불교관 일부에 10m 높이로 법당을 세울 계획입니다. 불상이 있다면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비록 불자들이 법회는 볼 수 없어도 참배에는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불교유적의 도난과 훼손은 불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불교유물을 박물관에만 보관할 수는 없을텐데 본래 자리로 돌아갈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또한 불교계에서도 사찰박물관을 건립하는등 도난과 훼손에 대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조언을 한다면.

한해 관람객 5백만명

▲불교가 이땅에 번창했던것은 스님들의 좌선만으로 이루어진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을 끌어들이고 신심을 일으키는 장엄구나 조형물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불교계에서 이에대한 관심과 연구를 필두 한국미술의 창조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불교가 한국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면 자연히 불교유물은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불교계가 앞장서서 옛것을 보존하고 새문화 창조를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교계에는 이러한 안목이 부족합니다. 불사라는 명목아래 무조건 크게짓고 모든것을 금으로 도금하려 합니다. 이는 불사의 본뜻을 망칠뿐아니라 자연까지 훼손하게 됩니다.

—얼마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대고려 국보전'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문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늘고 있는데 한국미술의 우수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미술의 우수성은 자연과 하나되는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보일려고 하지않고 자연과 어울리는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문화를 감상하는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끝난 '대고려국보전'은 바로 이러한 우리문화를 여실히 보아주었던 자리였습니다.

—관장님은 한국 도자기사의 틀을 다진 '도자기 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34년간 박물관을 지켜오면서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면.

▲국민들이 박물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집만 화려하고 내실이 없다면 박물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새로 건립되는 박물관은 외형보다 내실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모아 영구히 보존하는일에 미력하나마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준엽 기자

나의 수행일기



유순현 〈경기대 교수〉

나와 불교와의 인연을 생각하면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갔던 일이 먼저 떠오른다.

법당에 들어서면 부처님의 가슴에 들어앉는 것 같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의 믿음은 싹이 텄는지도 모른다. 그때만 해도 어린 나의 마음에 법당은 서먹했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학도의 꿈인 고시에 도전하기 위하여 충남 장곡사에서 동북쪽으로 능선을 타고 40분 이상의 거리인 칠갑산 까치네 절에서 1년동안 공부 하던 일…. 불교를 믿는다기 보다는 하루하루의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며 하루의 편안함을 기원하기 위하여 희뿌연 새벽안개가 마치 구름처럼 멀리 산허리에 떠보이는 꽤나 높은 산신당에 새벽에 다기물을 올리는 정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75년 미국 하와이에서 교통사고로 남편을 사별하고 세상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를 수십번. 재물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빈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아 보자고 다짐하고 마음비우기로 작심하기도 수백번 해보았지만 그리 쉬운 일들은 아니었다.

그후 다시 태어나는 아픔으로 학문의 도를 닦기로 결심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과정에 승부를 걸었다. 오직 일념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학문의 조그마한 분야에서 하나의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나(自我)를 관조할 수 있는 많은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만학을 하면서 쌓여있는 앙금같은 것을 걸르기 위하여 어느해 여름 힘들게 시간을 마련해서 여수에 있는 향일암에 철야정진을 간 일이 있었다. 남해 앞바다를 가까이 두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하면서 염주를 돌리고 있는데 왜 마음의 집중은 안되고 처마끝에 떨어지는 낙숫물에 밖에 벗어 놓은 등산화 젖을 생각만 날까. 아직 신심이 멀었구나 하는 후회를 하면서 되돌아온 일도 있었다. 나름대로 불심을 키우고 불심으로 살려해도 두터운 업은 쉬 사라지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면 신심으로 삼매의 경지를 체험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의 소원이던 때에 황규선박사(치과의원원장)의 권유로 불교모임인 정목회의 회원이 되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름대로 불교에 접근하려고 애써왔고 그 무렵 김천에 있는 직지사에서 '대련회'로 보살계를 받았다.

매년 음력 정초에는 강원도 오대산 보궁에 참배하고 한해동안의 바른생활과 바른 마음가짐을 부처님 전에 머리숙여 약속 드리곤 한다.

상원사 앞마당에서 한폭의 동양화 같은 눈덮힌 오대산 월정사 계곡을 바라볼 때 대자연을 품에 안은 것 같은 상쾌함과 그 넉넉한 마음 영원하기를 발원하던 그 행복감을 말과 글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

나에게 건강이 있는 한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자고 다짐한다. 가급적 일요일마다 북한산 승가사에 가서 석불전에 108배를 하고 나름대로 원을 세워 정진하고 있지만 늘 이제부터라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는 것은 웬일일까.

노년에 접어들어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정신적인 지도스님으로 법산스님(동국대학교 정각원장)을 뵙게 된 것은 나의 신행생활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매달 첫 토요일 오후 동국대 정각원에서 법산스님의 지도로 육조 혜능스님의 육조단경을 공부하고 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의 구절은 달마선종과 깊은 관계가 있고 '머무는 데 없이 마음을 써라' 이것이 보살행이고 그것이 여래행이라는 진리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위 없는 대도는 엷은 지혜나 가벼운 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는 진리도 함께….

오늘도 내일도 고요한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고요한 새벽은 이내 신선한 아침을 맞아 밝은 빛을 드러내듯이 나의 수행도 조용한 움직임으로 시작한다. 아미타불의 무량광이 누리에 퍼질 때까지.

어떻게 하면 흐린 세상에 있으면서도
물 안묻는 연꽃과 같게 되오며
어떻게 하면 번뇌 속에 살아가면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게 되리까.

"어떻게 하면 연꽃처럼…" 매일 다짐

쉽지 않은 '마음 비우기'…최근 육조단경 공부

12만여점 소장…"불교 다시 문화주체 됐으면"

용산 새청사에 법당마련 불교성보 조화배치

곧 철거하고 새 청사를 마련하게 되어 개관 50돌을 맞는 감회가 남다를 텐데요.

▲1908년 일본이 식민정책수행을 위해 창경궁에 황실박물관을 세운것이 국립박물관의 시작이라 할 수있습니다. '45년 국립박물관으로 개편된후 50년이란 짧지 않은 역사속에서 한번도 제집을 갖지 못하고 옮겨다닌 것은 문화민족으로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김재원(초대관장), 최순우(4대관장)선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나마 유물이 훼손되지 않고 국립박물관의 위상을 이어올수 있어 선배들의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박물관 이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박물관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은 오해에서 빚어졌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이전에 따른 경비가 수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물관이전에는 현 건물 철거비 47억원을 포함해 부대시설을 옮기는 것까지 1백억원의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구 총독부건물을 돌(石)집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건물은 콘크리트에

황금빛 도자기 불상 지금 선택하십시오



(7치 : 23.1cm) (5치 : 17.5cm) (1자 : 33cm)

일천불 조성 삼천불 조성 일만불 조성

장인의 혼과 얼을 담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 1380℃에서 구워낸 도자기불상 입니다.—

새로 개발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어 도자기로 만든 불상입니다.
도자기로 만든 불상을 조성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요.

(주)국보도자기, 국보기획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 B/D 301호
공장 :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장심리
전화 : (02)723~4260/1, FAX : (02)723~4260

대 표 권 영 천 합 장

다시 푸는 경서 — 처문경훈 (28)

孤山圓法師 示學徒 (고산원법사 시학도) ②

守仁義而確乎不拔 處貧賤則樂以忘憂
수인의이확호불발 처빈천즉락이망우
自然與禍斯遠 與福斯會
자연여화사위 여복사회
豈假刑祠禱命 祈求榮達之期
기가상형문명 첨구영달지기
擇日選時 苟免否屯之運
택일선시 구면비둔지운
此豈沙門之遠識 實唯俗子之妄情
차기사문지원식 실유속자지망정

인의를 지킴에는 굳세어 뽑히지 않게 하고 빈천한 데 처한 즉 즐거움으로써 근심을 잊으면

자연히 화는 어긋나고 복은 모여들게 되어라.

어찌 형상에 빗대어 운명을 물어서 영달의 때를 아침으로 구할 것이며

날을 가리고 때를 골라서 구차하게 비색한 운수를 면하려 하겠는가.

이것이 어찌 사문의 원대한 식견이랴 이는 실로 속인들의 망령된 생각일 뿐이다.

宜乎見賢思濟 當仁不讓
라

지혜가 넉넉함에 그로써 미혹을 비춰 없애고 자비가 넘치매 그로써 사람을 끌어잡게 된다.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궁즉독선기신 달즉겸선천하
使眞風息而再振 慧炬滅而復明
사진풍식이재진 혜거멸이부명
可謂 大丈夫焉 可謂如來使矣
가위 대장부언 가위여래사의
豈得身據鵷鸞 跡混常徒
기득신서강사 적혼상도
在藏惡則無所覩然 於行解則不見可畏
재예악즉무소문연 어행해즉불견가외
以至積習成性 自滅其身
이지적습성성 자멸기선

(뜻을 못얻어) 궁하면 홀로 저를 닦고 통달하면 겸하여 천하까지 좋게(제도)하니 그로하여 진리의 바탈이 찾아든 것을 다시금 떨치게 하고 지혜의 횃불 꺼져가던 것을 다시 밝게 하면

가히 대장부라 할 것이며 가히 여래의 심부름 꾼이라 할 것이다.

명리와 죽고사는 걱정으로 근심치 말라
지혜로 미혹 없애고 자비로 사람을 포용

의호견현사제 당인불양
慕雪山之求法 學善財之尋師
모설산지구법 학선재지심사
名利 不足動於懷 死生 不足憂其慮
명리 부족동어회 사생 부족우기려
倘功成而事遂 必自遐而陟遐
당공성이사수 필자이이척하
不沽名而名自揚 不召衆而衆自至
불고명이명자양 불소중이중자지
智足以照惑 慈足以攝人
지족이조혹 자족이섭인

마땅히 어진 이를 보고 (그와) 가지런해지길 생각하고 인의를 만나 사양치 말며

부처의 설산구법을 사모하고 선재동자의 53선지식 찾던 일을 배워서

명리의 뜻을 품어 족히 움직이려 하지 말고 죽고 사는 걱정으로 근심 떨지 말지어다

혹 공부가 쌓여서 일을 마치게 되려던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로 오르게 되니 (세속일을 떠나서 도의 길로 나아감, 또는 '나'의 문제로부터 '전체'의 문제로 나아감)

(그렇게 해 나가면) 이름을 팔지 않되(매명) 이름이 스스로 드러나고 대중을 부르지 않되 대중이 스스로 오는지라

강원에 들어가 살면서 발자취가 보통 사람들과 섞여지내며 더러운 속세에 머물면 허물을 지적하지 않게 되니 행과 해에 두려워 함을 보지 못하는지라, 어찌 그로써 습성이 쌓여 성품이 되게 해서 제 몸을 망치려 드는가.

始敎慕彼上賢 終見淪於下惡
시교모피상현 종견륜어하악
如斯之輩 誠可悲哉
여사지배 성가비재
詩云靡不有初 鮮克有終 斯之謂矣
시운미불유초 선극유종 사지위의
中人以上 可不誡歟
중인이상 가불계여

처음 배울 때에는 저 옛 선지식을 사모하다가 끝내는 하열한 악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나니

이같은 무리들은 진정코 불쌍하구나

옛 시에 이르기를 '처음이 없는 법은 없으나 마침이 있기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극히 드물다'하니 이같은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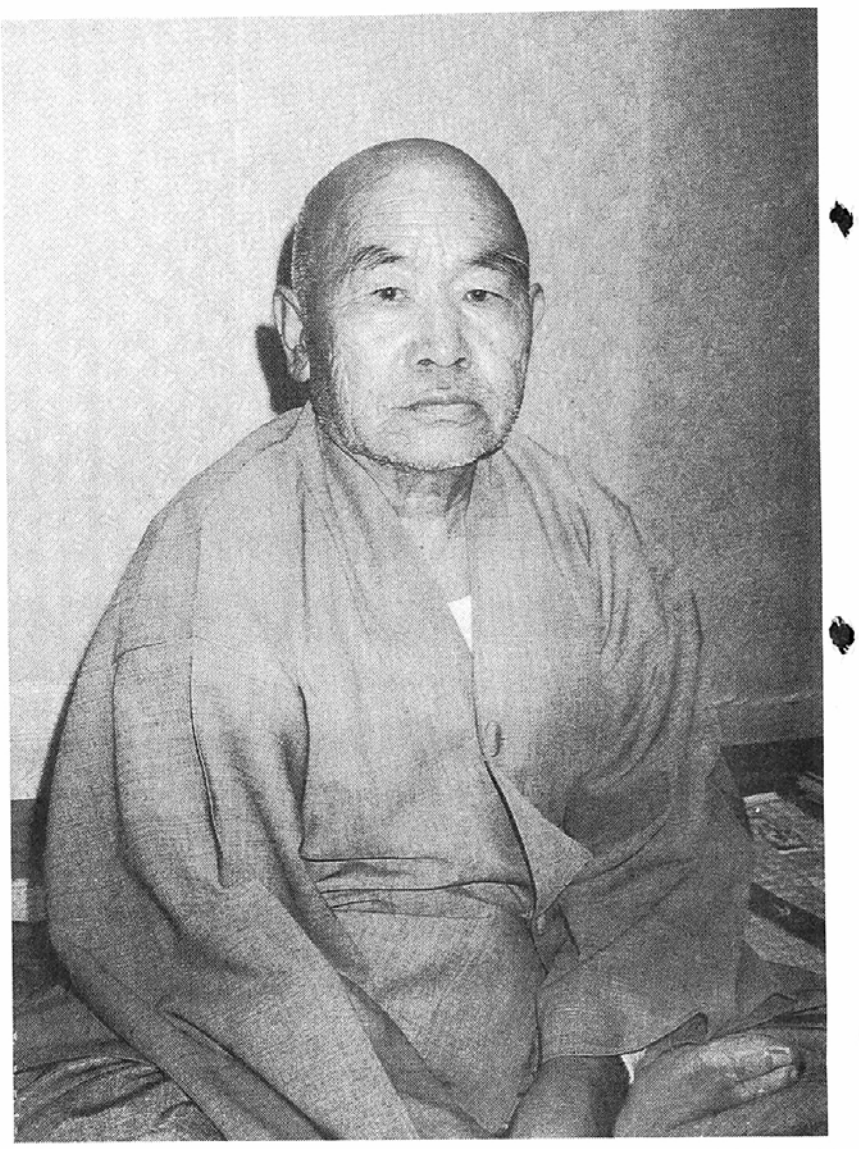
중근기(보통사람) 이상은 경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龍眼

지상법석

"자신을 알지 못하면

성찬스님 〈도성암 조실〉



약력
- 1914년 8월 26일 충남 논산 生
- 23세 되던 해 만공스님 은사로 계룡산 동학사로 출가
- 1969년 이후 대구 비슬산 도성암 주석

제가 지금 20여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속세의 인연으로 찾아온 풍(風) 기운을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법문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법문이란 특별히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산속에 흐르는 물소리, 바람소리가 다 상승 법문입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듣고도, 새벽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보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일체가 다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毘盧 延壹萬劫(비로 연일만봉)
東海 延萬里通(동해 연만리통)
山海 淸淨法身(산해 청정법신)
風聲 說解曲(풍성 설해곡)

비로는 헤아릴 수 없이 우뚝 솟아있고, 동해는 널리 도달하지 않는 바가 없네.

산과 바다는 청정 부처님이요,

바람소리는 조사의 노래소리로다.

일체중생이 다 천진불(天眞佛)이라 했는데 왜 천진불이 지금처럼 우매 했을까요.

우매한게 아니라 애초에 깨닫지 못한것입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통틀어 삼천대천세계라 하는데, 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애초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49년동안 설법하신 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기 위

"백년이 안되어 소멸하는 몸뚱아리는 내가 아닙니다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 주인공을 깨달아야"

한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네가 너 자신을 알라' 고 가르치신 겁니다.

자기자신도 모르는 자를 어찌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형상만 하고 있을 뿐 참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사람노릇을 하게 됩니다.

백년이 안되어 소멸하는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닙니다. 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 주인공(主人公)을 깨달아야 합니다.

"凡所有相 皆是虛妄(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니라

무릇 이 세상 물건은 하나도 떳떳한게 없습니다. 한번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며 만약 어떤이가 일체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부처를 보는 것입니다.

금강경 한구절 가르치는 게 시방세계 사람 모두를 먹여 살리는 공덕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대구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려고만 해도 얼마나 큰 부자라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도 나고 죽는 생사의 이치는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한 생각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한 구절을 예사로 흘려 듣지말고 깊이 체득해야 합니다.

자기자신을 완전히 깨달으면 영생불멸과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가섭부처님이 계셨는데 이곳 비슬산 도성암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장차 이 자리에서 천 명의 도인이 나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신라시대의 고승 도성국사가 도안(道眼)으로 이를 관하고 음막을 짓고 수련했는데 훗날 선덕여왕 때 승법스님이 절을 세운게 현재의 도성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라시대부터 천인득도지(千人得道地)라 불리었습니다. 지금까지 48분의 도인이 나왔는데 9분의 유품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이 산에 도성(道成) 선사와 관기(觀機)선사 두 도인이 봉우리를 마주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관기선사가 도성선사 있는 곳으로 오면 산의 나무들이 미리 도성선사가 있는 봉우리로 쏠리고 도성선사가 관기선사 있는 봉우리로 가면 그 반대편으로 나무가 쏠렸데요.

이렇게 두분이 유유자적하면서 살다가 같은 날 열반하시면서 무애자재의 큰 이적을 남겼습니다. 암자 뒤쪽으로 올라가면 도통바위라고 있는데 거기서 도성국사가 먼저 허공에 떠 오른뒤 등천하였고 관기선사가 그 뒤를 따랐답니다. 이렇듯 깨달음을 얻으면 생사를 초월하여 무애자재의 대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들수 있을까요. 중국 선불교의 중흥조인 6조 혜능대사는 대중들에게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꼬리도 없고 적색도 황색도 청색도 백색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 (이뭣꼬)? (吾有一物 頭尾無物)"라고 하였습니다.

경허스님은 "알겠느냐? 어느물건이 설법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공손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황광우 이경옥 옮김
신국판 전2권 각권 7,500원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
오석제 옮김

유럽의 정신세계를 일깨운 데시마루 선사의 대화록

삶과 죽음, 수행과 깨달음, 선(禪)과 현대문명 등의 주제를 놓고 동양의 선승과 서양의 지식인이 나눈 허심탄회한 대화. 지금 이 자리에 집중하여 깨닫고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담담하면서도 간절하게 깨우쳐 준다.

196쪽 / 값4,500원



데시마루 선사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참된 지혜를 깨쳤은 몇 안 되는 스승의 한 분으로 널리 존경받고 있다. 선사는 조동선(曹洞禪)의 거장으로 1967년 단신으로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몸을 싣고 유럽에 건너가 선불교 포교에 전력하다가 1982년 입적했다.



당신의 적이 당신의 스승입니다

8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달라이 라마가 적과 동지, 사랑과 미움을 초월해 전인류에게 띄우는 자비와 지혜의 메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이타정신, 자비심, 사랑 등을 통하여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을 설하고 있다.

김충환 · 김신정 옮김 / 244쪽 / 값 5,000원

장승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번지 / 전화 730-2500 팩스 723-5961

불교학 세미나 ①
존재론 · 시간론

철학의 핵심주제인 존재론과 시간론을 불교적 시각으로 조명한 책. 무아와 공을 설하는 불교의 존재론은 서양철학과 기독교 신학의 유(有)적 존재론과 달리 유와 무를 초월한 실천적 중도(中道)임을 밝히고, 존재와의 연관 속에서 시간을 해명하고 있다.

—林北洞 편 / 김재천 옮김 / 288쪽 / 값 6,000원

불교학 세미나 ②
인식론 · 논리학

불교의 인식론과 논리학에 관한 한 가정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의 '강좌불교사상' 제2권 《인식론 · 논리학》을 국내 최초로 번역한 책. 원시불교에서 후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인식 성립과 그 타당성, 인식의 진리성 등의 문제와 디그나가 · 키탈라얼리 등의 논리사상 및 비고논리학의 방법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林北洞 편 / 심봉섭 옮김 / 384쪽 / 값 8,000원

인도불적답사기

인간 석가모니의 체취를 찾아 떠난 호진 스님(동국대 교수)의 인도 불교유적 답사기. 룸비니 · 보드가야 · 사르나트 · 바이샬리 · 라자그리하 · 쉬라바스티 · 쿠시나가리 등 부처님이 생전에 밟으셨던 길과 장소를 초기불교를 진공한 혜지의 눈으로 진솔하고 쉽게하게 안내한 책.

신국판 4색 컬러인화 / 332쪽 / 값 10,000원

큰 죽음의 法身

《허공의 몸을 찾아서》와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을 통해 이미 독자와 친숙한 지명 스님이 불교방송 강진공부 시간에 들려준 《열반경》 강의록.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최후로 설법한 《열반경》을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여러 일들을 소재로 삼아 재미있게 풀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석지명 지음 / 신국판 / 672쪽 / 값 9,500원

불교시대사 전화 730-2500 팩스 723-5961

지 상 법 석

사람노릇을 못해요"

"화두도 내가 들고 망상도 내가 냅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참나를 찾습니다"

"세속에서도 수행가능 … 번뇌에서 지혜 얻어요"

경전정신 모르고 문자 집착하면 공부에 장애

하고 청법하느냐? 형상없으되 뚜렷한 그 한 물건을 일러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한 물건 찾는 공부를 해야됩니다. 자나 깨나 밥 먹을 때나 일 할 때나 생각을 일으키는 '이 한 물건이 무엇인고'하고 일념으로 참구해야 합니다.

하도 번잡한 세상이다 보니 수행자들이 여러가지에 마음을 쓰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그렇게 해서는 닭벼슬에도 못미칠 공부밖에 이룰 것이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자기마음 깨치려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는 화두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의 은사이신 만공스님은 "사람을 대할 때는 자비심으로 대하여야 하지만, 공부를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극히 악하고 극히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공부하는 사람은 세속의 인정에 끌려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수련을 위해 꼭 머리를 깎고 출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적정처에서 얻은 공부보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얻은 공부가 더 견고하고 오래갑니다. 번뇌가 많고 분별심이 많은 바로 그곳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하면서도 수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열에 아홉은 나쁜 인연으로 만듭니다. 기껏 50년정도 같이 사는데 서로 어거지로 삽니다. 그나마 요즈음엔 툭하면 이혼 한다고들 하고…. 좋은 인연 만나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 만나서 같이 수련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만공스님은 "번뇌를 지우고 지혜를 별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있되 그 번뇌에 어둡지 않고 번뇌의 실상을 여실히 봄으로써 번뇌의 당처(當處)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생사와 열반이 둘 아님 (不二)에 있어서 생사가 끝나고 열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사 그자체로서 열반의 모습을 삼는 당시당처(當時當處)의 불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장래의 어떤 시점에 중생의 몸을 여읜 부처가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니라, 즉시의 현전에서 업력으로 받은 육신인 '나'가 있는 그대로 이전과 이후가 아무런 다름이 없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화두도 내가들고, 망상도 내가 내고, 잠도 내가 잡니다. 거짓된 나 자신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겨 참 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일체의 생각들을 쉬고 일념에 들 수 있어야 하며, 일념에 든 나머지 일념이라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무념처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일념에서 무념으로 무념에서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갈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공 스님은 "꿈과 생시가 한결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가곤 합니다. 사중의 살림도 장만할겸 세간사람들과 어울려 절에서는 느낄수 없는 세간 사람들의 삶을 느껴보기 위해섭니다.

공부는 모든 것으로 부터 배우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다는 것을 일체로 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체가 다 나의 스승입니다.

중생들이 우매한 까닭은 마음공부는 아니하고 먹고 사는데 끄달려서 망상만 익혔기 때문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나인줄 착각하고 명리를 위해 욕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절 법당에 가면 근불여라고 모셔져 있습니다. 원래 이 밑의 마을 처녀 였는데 이곳에 나물을 뜯으러 왔다가 도성선사에게 법문을 듣고 사흘만에 득도를 했어요. 이분이 깨달은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들마다 나라고 얘기 하지만 나는 존재하는 바가 없다. 다만 썩어서 사라질 이 몸뚱아리가 있어서 말을 하고 시비분별심을 내어 다른 사람과 다툼을 벌인다.

실제로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삼라만상이 다 없는 것이다. 또 없는 그것은 뭣인고? 없지만 묘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득도를 하여 광생을 이젓에서 대도인으로 사셨습니다. 이렇듯 깨달음에는 남·녀 구별도 없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사무치게 참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다 공부를 명확하고 수월하게 하려면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야 합니다.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공부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선지식을 만난 다음에는 철저한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스승에게 맡겨야 합니다.

만공스님은 "선지식을 믿는 정도에 따라 마하가섭은 일의일발(一衣一鉢) 두타행을 하셨고 백장스님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정신으로 생활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몸이 건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치 않은 만큼 더 절실하게 화두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먹지 않아도 사는 경계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부처자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몸뚱아리가 하는 것이다. 이 마음자리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경허스님은 "오늘은 비록 보존하나 내일은 보존하기 어렵다. 정신바짝 차리고 게으름없이 모든 일에 무심하고 마음에 일 없게 하면 지혜가 자연히 깨끗하고 밝아진다"고 하였습니다. 화살과도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잠시도 딴 생각을 내서는 안됩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듣고도
새벽하늘 별빛을 보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 있으니까요"

가끔 교학공부에 대해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치려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글로써 부처님마음을 드러내기에는 어림없습니다. 오로지 화두하나 들어쥐는 선(禪) 수행을 해야만 그 부처님 마음에 다가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님들이 선을 최상승법문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여 경을 불사르곤 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볼 때 반야를 밝히려는 경전의 정신을 모르고 문자에만 집착하면 좋은 부처님의 말씀도 도리어 공부에 장애가 되질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스님들이 현실에서 글을 쓰기위해, 말을 하기위해 또는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교학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공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39

양 형 진

성주괴공 I

우리의 우주는 별이나 혹성 등의 천체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평균 거리가 대략 5광년 정도 되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과 별 사이의 대단히 넓은 공간에는 무수히 많은 물질이 존재한다.

연기나 안개와 같이 그 밀도가 아주 적으며 주성분이 수소인 이 물질을 성간물질이라 한다. 이 성간물질은 우주 공간에 균일하지 않게 분포하며, 그 밀도는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 간다. 이것이 성주괴공(成住壞空)에서의 공의 단계이다.

아무 것도 없는 듯 하지만 무의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가 이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없는 듯 하기고 한 그런 상태이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성간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의 밀도로 모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사방의 별에서 오는 빛에 의해 이 덩어리에 광압이 가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이 덩어리는 더욱 밀집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수축되는 과정이 계속되면 내부 압력이 커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밖으로 퍼지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지만, 이 성간물질의 덩어리 내에 탄소 등의 고체입자가 소량 섞여 있게 되면 발생되는 열을 장파장의 전자기파 복사로 방출시키게 되어 열을 식히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수축 과정이 지속될 수 있다.

이 과정이 계속되어 어느 정도 이상의 밀도가 되면 성간 물질 자체의 중력에 의하여 수축 과정이 가속화된다.(우주에는 기본적인 4가지 힘이 존재하며 이 4가지 힘 중에서 중력은 가장 약한 힘이지만 우주의 진화는 거의 전적으로 이 중력에 의한 것이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내부의 압력과 온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데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뜨거운 난로가 붉은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이)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다가, 온도가 1천만도 이상에 이르게 되면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하여 하나의 헬륨핵을 이루는 핵융합반응이 시작된다.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보다 크며, 이 과정에서의 결손질량이 $E=mc^2$이라는 식에 의해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별이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매일 보는 햇빛도 이런 식으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이다. 태양의 경우 수소와 헬륨의 구성 성분비로 보아 약 50억년 전부터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였다고 추산된다.) 이것이 성주괴공의 첫 단계인 성의 단계 즉 탄생의 단계이다. 이로써 별로서의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일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 별을 수축시키려는 중력과 별을 확산시키려는 열에너지가 힘의 평형을 이루어, 별은 대체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대체로 일정한 양의 수소를 소모하므로 별의 밝기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별의 생멸 空에서 출발 空으로 돌아가
우주는 영원한 것없는 제행무상 세계

이렇게 수축되는 과정이 계속되면 내부 압력이 커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밖으로 퍼지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지만, 이 성간물질의 덩어리 내에 탄소 등의 고체입자가 소량 섞여 있게 되면 발생되는 열을 장파장의 전자기파 복사로 방출시키게 되어 열을 식히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수축 과정이 지속될 수 있다.

이 과정이 계속되어 어느 정도 이상의 밀도가 되면 성간 물질 자체의 중력에 의하여 수축 과정이 가속화된다.(우주에는 기본적인 4가지 힘이 존재하며 이 4가지 힘 중에서 중력은 가장 약한 힘이지만 우주의 진화는 거의 전적으로 이 중력에 의한 것이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내부의 압력과 온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데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뜨거운 난로가 붉은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이)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다가, 온도가 1천만도 이상에 이르게 되면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하여 하나의 헬륨핵을 이루는 핵융합반응이 시작된다.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보다 크며, 이 과정에서의 결손질량이 $E=mc^2$이라는 식에 의해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별이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매일 보는 햇빛도 이런 식으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이다. 태양의 경우 수소와 헬륨의 구성 성분비로 보아 약 50억년 전부터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였다고 추산된다.) 이것이 성주괴공의 첫 단계인 성의 단계 즉 탄생의 단계이다. 이로써 별로서의 생명이 시작된다.

별이 커지면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높아 격렬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밝은 별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두운 별이 된다. 이러한 안정된 단계는 수십억년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 이는 성주괴공의 주에 해당하는 단계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수소 핵융합 반응은 그 원료인 수소가 다소모되고 나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별의 일생은 끝나게 된다. (태양은 약 50억년 정도 핵융합 반응을 더 진행할 수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주괴공의 괴의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다음 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성주괴공의 원리는 유기생명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영원한 것 처럼 생각되는 태양과 같은 천체에 까지 적용되는 우주의 원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성간물질이 인연따라 모여 밝은 빛을 뿜어내는 별이 되어 활동하다가 생명을 다하고 나면 다시 한 번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삼천대천세계 역시 오로지 연기법의 현현일 뿐이며, 그러므로 제행무상이요 제법무아일 뿐이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 · 변비 · 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무승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마포 점자 도서실
지회 마포점자도서실은 1990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녹음)도서 대출, 점역 출판, 중도실명자 점자교육사업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교육을 통하여 낙후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현실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온 시각장애인 복지시설로 함께 하실 회원과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후원금 동참 안내(월 후원금 3,000원 이상)
-중소기업은행 279-007914-01-017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
-상업은행 113-05-176427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
(사)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마포점자도서실
서울시 마포구 망원2동 451-1
TEL.(02)338-0180 / FAX.(02)337-7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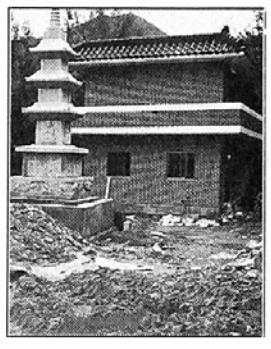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합장
대 표 이 규 영
동양석재 주간 : (0357) 541-4705 야간 : (0351) 847-2001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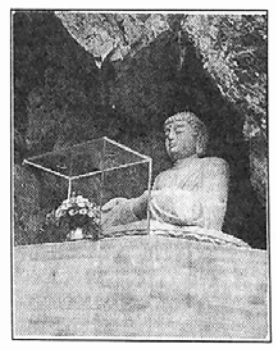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찬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특성
개인지도 원칙, 레슨기간 자유선택, 찬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창청음 별도수업실시
•등록 : 수시접수(725-7527~9)
•장소 : 불교교육연구원(조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


인수사찰 증설에 참여하실 분
• 사찰 부지 및 도로 옆 휴게소 가든 건물 55평(현재 성업중)
• 대지 주차장 300평 / 신축 모텔 부지 1,000평) 매도가 5억원
-가든 휴게소 건물 2·3층 모델 증축 가능지
-농산물 · 일용생활품 매점 가능지
연락처 집(조석) 0441-851-3866
사찰(12시) 0441-853-2896
FAX 0441-43-7364
※ 불교신자 · 독지가 환영

법당 신축 협찬자 구함
-충주댐 강변 진입도로변 별장지
:계명산 사찰 신축 요지
• 석굴암 본존 석가모니 불상 7자 높이, 굴 50평
• 석가 5층탑 22자 높이
• 관세음보살상 15자 높이
• 아미타불 자상고 5자 높이
• 요사채 2층 방 6 / 1층 방 3) 35평형
-대지 705평 도로 포장 시설지
• 현 5억 투자 시설된 곳 이후 5억 투자하실 분 구함
• 향후 법당, 대웅전 증축 요사채 및 산신각 증축 계획
• 기설사찰, 신축지 1,000평 내외 양도 가능
※ 사찰 운영할 보살, 스님, 독지가, 새사찰개발 운영하실 분 환영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44

흔들리는 인담

"본래 공(空)한 것도 없어요. 공연히 색(色)이다, 공이다 하는 말을 지어내서 우리를 더 무명(無明)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인담은 충청도 서부지방을 편력하면서 어느덧 느린 방언(方言)에 길들여졌다. 말 몇마디를 하고 나면 하루가 다 저문다는 그 일대의 느린 말은 바로 느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였다.

그래서 충청도 서산 일대의 중이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동안 그 중의 나이가 스무살에서 서른살이 된 일도 있다하였다. 그 일만 아니라 그런 중의 그림자조차도 아주 느릿느릿한 늙은 구렁이처럼 길어서 해가 진 뒤에도 남아있다 하였다.

이런 환경에 느적느적 익숙한 인담인지라 그의 수행도 그것이 바람직한 경우라면 조급하지 않은 것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영락없이 게으름뱅이여서 흡사 달팽이 행각(行脚)이었다.

이런 느린 인담이 우녀의 다그치는 정진의 압력 때문에 그의 공부도 원래의 느린 것이 바뀌었다. 충청도 서해안 일대의 느린 말씨와 느린 행동은 그대로 바다 건너 청나라 산동반도 일대에도 전너간 것인지 그곳의 백성들이나 관리 그리고 선객(禪客)들도 게으르기 짝이 없는 만만디(慢慢的)의 나날이라 하였다.

충청도 당진 바닷가 마을의 새벽에는 청나라 산동지방의 바닷가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조차도 아주 길고 긴 느린 소리여서 충청도를 뱉치고 있다 하였다.

바로 이런 지방의 절 공부도 경론(經論)을 배워도 한 장 넘기기가 쉽지 않고 선방의 화두(話頭) 한 꼭지 들어쥐는 일도 그 화두가 글뱅이노릇이어서 조주(趙州)의 무자(無字) 하나가 한 선객에서 확보되려면 무려 10년이 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한번 붙들었다하면 결코 놓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녀는 그런 느림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개탄하였다.

"원! 이런 게으름뱅이로 무슨 놈의 서방정토이겠어? 그 10만억국토를 언제 지나가겠어? 백년을 가고 천년을 가도 제자리에서 10리길도 나갈 수 없을테지."

그녀가 무욕도에 와서 차츰 그녀의 힘을 발휘하게되자 인담의 영향력을 앞서서 이곳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도 인담의 느린 행동 때문이었다.

그녀가 인담으로부터 배운 태교(太敎)의 돈오돈수(頓悟頓修)와 보조(普照)의 점수(漸修)를 다 같이 익히다가 이곳 무욕도의 선방에서는 돈오수행이 알맞겠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도 돈오만이 인담의 느린 공부 따위를 가차없이 멈추게 하여 마치 발바닥과 머리터럭에 불이 난 것 처럼 용맹스러운 공부의 속도를 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녀는 그동안 인담을 은근히 독려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마음 속에서 친밀해지면 친밀할수록 그 관계는 우녀의 조종으로 되어있던 것이다.

"스님! 스님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이제 제가 스님의 그림자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우녀의 말에 인담은 흡족 찾아서 마치 우녀의 품에라도 안긴 것 같은 그윽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다.

"스님! 우리 수행은 아무래도 담박에 깨치는 공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일체의 게으름이나 느린 것을 타파하는 일이 그 공부의 첫걸음이겠습니다…"

인담은 당돌하기까지 한 이같은 말에 고개를 끄덕일 따름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서 드리워진 수양버들의 그 유연한 가지들이었다. 그녀의 바람이 불어주기만 하면 흔들리는 가지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스님."

"네."

인담은 우녀에게 아주 부드러웠다. 그의 말투만은 여전히 느린 채.

"그런데… 왜 중국의 조계산은 6조 혜능의 돈오 가풍인데 조선의 전라도 조계산은 6조가풍의 돈오가 아닌 보조국사의 점수로 이어져오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못하였다. 한참 뒤였다. 역시 중한 대답도 느린 것이 인담에게는 흉이 아니었다.

"보조국사한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만 태교와 보조 두 문중이 서로 팔을 걷어부치고 상대방을 매도함은 이미 수행하는 자의 일이 아닙니다."

실로 물에 다른 물을 탄 것 같은 상거운 대답이었다. 하지만 우녀는 비록 이런 대답이지만 "제가 한 말이 다른 뜻으로 옮겨갑니다"라는 지적으로 답답하였다.

이런 처지의 인담과 우녀였으므로 인담이 그녀를 난데없이 포용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이는 달라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인담으로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녀의 손아귀에 여지없게 들어가고 말았다.

아니, 그는 어느덧 그녀의 지배 아래에 속해진 것이었다. 한 여자로 계안은 것이 아니라 한 정신의 어머니로 계안았단 말인가? 한 여자를 계안아서는 안되는 그의 사정이 한 여자를 한 어머니로 승격시켜서 계안을 까닭을 얻었단 말인가?

어쨌거나 그들은 그런 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는 평상이었으나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인담이 우녀의 제자처럼 되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우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

과현이 이런 우녀의 증상을 살펴보더니 "마치 제가 앓던 것처럼 앓으십니다"라고 인담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녀가 새삼스럽게 무병(無病)이라도 앓는단 말인가.

"나 온몸이 쑤셔댑니다 바깥바람을 쏘였더니…"
인담은 우녀의 몸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주 정밀한 세공처럼 주물렀다

무병이라면 그녀는 이곳에 데려오기 이전의 그 공기(狂氣)를 보이던 집없는 처녀시절에 이미 앓았던 것인지 모르거니와 이번에도 그런 증상이라면 그녀의 수행이 그 무당기운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 되기도 하였다.

"과현수좌가 돌보는 일을 내가 맡겠오" 라고 인담이 사람들의 눈도 있어서 나서지 않고 있다가 과현의 말을 구실로 삼아 그 자신이 우녀의 방을 드나드는 일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우녀를 자극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일을 공부로 여기고 있었다. 밤중에도 숫제 우녀가 거처하는 방에서 나올줄 몰랐다.

그런 인담에 대해서 과현이나 수원 수월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인담으로서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아예 없었다. 그만큼 그는 지극정성이었던 것이다.

만약 우녀가 병들어 누워있지 않더라도 그는 어떤 그럴싸한 역할을 내세워 우녀와의 밤을 지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간밤의 갑작스런 폭풍우 때문에 사나운 번개가 쳤다. 바람이 빌어지고 천둥소리가 요란한 채 장대비가 캄캄한 밤을 내리 퍼부어댔다. 바람도 우렁찼다. 그래서 바다 전체도 뒤집히지 않을 수 없었다.

무욕도 바닷가 절사들의 갈대지붕도 파도더미에 덮이기를 좀처럼 멈추지 않는 비바람 때문에 몹시 시달렸다. 급내 대중처소의 지붕이 흠러덩 벗겨지는 사태에 이르러 서너사람이 그 지붕을 복구시키는데 애를 써야 하였다.

무욕도 산꼭대기의 웅집 선방은 아예 버락에 맞아서 시커멓게 타버렸다. 그 부근의 늙은 소나무들도 밑동까지 잘려나갔다.

수원이 그 꼭대기 선방에 다녀와서 투덜댔다.

"이 도량에 무슨 벌이 내려진 것인가."

인담은 수원으로부터 버락맞은 웅집에 기를 듣고도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사람이 죽어가는 판에… 집 한채 없어진 것은 우리 대신으로 그것을 없애준 셈이나 소실댁도 두루 안녕하십니까?"

"예잇… 말씀을 낮춰 주십시요. 스님."

"여기는 반상(班常)이나 귀천(貴賤)이 없는 평등의 도량입니다. 개에게도 부처 성품(佛性)이 있다 없다하는 말을 주고 받는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소인배들은 죽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만 말씀하시지요."

"종노릇도… 하기야 종노릇도 보살행인지 몰라."

그때 과현이 두 사람에게 한 마디 던졌다.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될 생각 없오?"

이 말에 인담이 딱아섰다.

"아니오. 임천지의 길은 산심을 생각한 다면 일을 그렇게 끝고 가서는 안되지요… 어서들 건너가시게."

두 사람은 우녀에게 깊은 경의를 마치고 고개를 숙인채 정사 넘어의 선차장으로 갔다.

인담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양식이 충분한 것에 저으기 안심하였다. 그는 우녀를 부액하여 그녀의 거처로 갔다.

"나 온몸이 쑤셔댑니다. 바깥바람을 쏘였더니…"

그는 그녀의 몸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주 정밀한 세공(細工)처럼 주물렀다. 그것은 애무가 아닌 애무였고 안마가 아닌 안마였다. 차라리 그것은 너도 나도 없는 상태의 설산(雪山) 천길 바람에 불어있는 석청(石淸)이었다. 그것을 먹음으로써 나오지 않던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난산(難産)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해산의 성공과도 같은 달디 단 기쁨이었다.

우녀는 지극히 담담한데 인담은 지극히 기뻐 어쩔줄 몰라 그의 두 손이 야릇한 미진(微塵)의 지각(地殼)처럼 떨고 있었다.

"본래 공(空)한 것도 없어요. 공연히 색(色)이다, 공이다 하는 말을 지어내서 우리를 더 무명(無明)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인담의 입은 열릴 줄 몰랐다. 오직 그의 두 손만이 살아 있었다.

그림 · 조향숙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교 초심자들이 배워야 할 수행생활의 기본정신 『초발심자경문』, 일타 큰스님의 해설로 세 권이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은
저절로 얻게 된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III. 인간에 전해지는 인과 윤회담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사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읽어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행이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간
후회없는 구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열가지 보배경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 큰스님께서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불교신행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복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과 행복은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은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공양문
신간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72년 초판 발행 이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왔던 책.
불서가 귀하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구해다 놓고
두고두고 읽었던 책.
이제 그 책을 토대로 대폭적 증보
발간하여 불자님들 앞에 선보입니다.
시원시원한 편집, 읽기 쉬운 가로쓰기,
한글 번역문과 함께 실린 원문으로
초심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였습니다.
발심 · 수행 · 구경(究竟)의 길을
법공양문 과 함께 여행하며
참다운 법공양의 기쁨을 느껴 보십시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02)587~6612 · 6613 팩스:(02)586~9078

95북경세계여성회의가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슬로건 아래 지난달 30일 부터 지난 15일까지 중국 북경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대회는 정치, 인권·성폭력, 여성과 평화, 교육과 여성, 여성과 사회개발, 여성과 환경, 경제세력화, 문화예술, 매스미디어, 종교, 여성장애인, 여성건강분과등 총 12개 분과로 나눠 열띤 논의가 이뤄졌으며 본회의(GO)에서는 행동강령들을 채택했다.

향후 10년동안의 세계여성운동의 지표가 될 행동강령은 남성과 동등한 교육권인정, 여성의 발언권 및 의사결정권인정, 여성의 인권, 여성 성폭력에 포함, 전쟁중 성폭력 처벌등 총 1백 50페이지에 달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용어인 생물학적인 의미가 강한 섹스(Sex)대신 사회적 의미가 함축된 젠더(Gender)로 통일하게된 것은 여성의 힘을 보여준 결과다.

전세계 1백85개국 5만여명이 참가한 이번대회에 우리나라는 영부인 손명순 여사를 명예수석대표로 본회의와 NGO포럼에 유례가 없는 5백여명이 참석,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 졌음을 보여주었다.

96개 단체로 결성된 한국여성 NGO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성희롱 문제, 환경문제등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국제여론에 제기했고 20여개의 워크숍을 주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적, 혹은 나라별 이슈가 총집합돼 '여성의 문제는 곧 인권문제'라는 인식을 널리확산시켰으며, 또 반핵과 환경운동 등 인류에 대한 마지막 도전을 해결키 위한 여성들의 강력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밖에 여성의 정치세력화, 경제세력화 등도 이번대회에서 빠뜨릴수 없는 중요한 이슈였다.

한편 세계여성회의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세계평화, 문화 발전을 위해 지난 75년부터 10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지난 75년 제1차 맥시코시티회의를 시작으로, 제2차 코펜하겐회의, 제3차 나이로비회의에 이어 이번 북경회의가 4번째다.

"차별없는 권리를 찾자"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채택

NGO포럼 환경분과위 참가한 성덕 스님

"여성불자 환경운동 '정치교실' 열어 이끌 계획"

이번 북경세계여성회의 전 세계 5만여명의 여성 참가자들중 한국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비구니스님인 성덕스님(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이 NGO(비정부기구)포럼 환경분과에 참가했다.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 우리사회 곳곳을 섬세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함께 찾고자 한 것이 바로 북경세계여성회의 입니다" 성덕스님은 경불련 여성위원회 대표로 참가, 환경분과에서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의 결합 등 각종 포럼과 분과토의에 참여했다.

성덕스님은 "이제 불교도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통해 불교이념이 바로 사회지도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착실한 경험을 쌓기위해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번회의에서 "선진국과 제3세계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우리 한국여성들은 이론과 활동역량에 있어 뒤지지는 않지만 주도적 위치는 아직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면서 "선진 각국 여성들이 자기나라에서의 각종 정부압력을 통해 제3세계 여성을 보호하는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는 것이 특히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세계여성회의의 한 부분인 종교분과위에는 불교가 참가 하지 않은채 기독교와 천주교의 주도아래 회의가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다고 스님은 전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수녀들이 한복 저고리치마를 입고, 개방적이고 선진적인 모습으로 각종 워크숍에 참가했으나 불교계는 성덕스님만이 환경분과에 유일하게 참가해 겨우 체면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성덕스님은 세계여성의 흐름을 읽고 21세기 포교 대안을 마련, 대응한다는 점에서 "불교도 사회에 눈을 뜨고 중생고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

여성보호 네트워크 형성 등 선진국 활동역량 '인상적'

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의 첫작업을 위해 성덕스님은 여성불자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내년 봄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 정치교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여성회의를 기점으로 불교계 여성단체들도 더욱 분발, 불교의 세계화를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 이라는게 성덕스님의 견해다.

이은자 기자



◇NGO 환경분과에 참가한 성덕스님은 덴마크 등 외국 참가자들과 다양한 토의를 가졌다. (맨뒤 중앙이 성덕스님)

만화

法句經 법구경

* 폭력의 장 *
죄 없는 순진한 사람을 폭력으로 해치는 자는

이 항 원



이른후 건강칼럼

<34>

건강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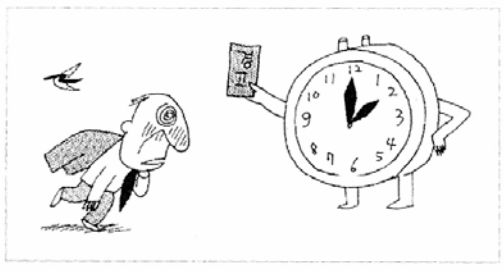
불규칙적 생활습관 신체·정신병 유발

건강은 건강할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병이란 이미 나버리면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치료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건강했던 똑같은 상태의 건강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병은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치료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갖는 우매한 점이 바로 병이 나서야 건강의 고마움을 안다는 데 있다.

최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조사한 피보험자의 건강검진 결과가 우리들에게 충격을 던져준다. 이 조사대상자는 병원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는 건강하다고 느끼며 병원을 찾지 않았던 사람(1,112,72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여서 더욱 충격을 준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조사자의 절반이 약간 넘는 62.8%만이 건강하고 나머지는 어떤 질병이든 갖고 있었다는 결과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불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46.8%만이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대는 80.1%, 30대는 66.7%, 40대는 56% 정도가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불건강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비율이 너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건강 판정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남자가 상대적으로 불건강하다는 뜻이다.

물론 질병을 앓게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밝혀진 원인균에 의해 감염되는 것도 있겠고 외상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신체내부의 내분비의 이상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구체적인 질병 유발의 원인이 되는 것조차도 더 깊은 원인을 따져 보면 그런 원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심리적인 조건을 더 먼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말은 감염균이 뚜렷한 것이라도 왜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이 안될까를 생각하면 해답은 나온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습관과 질병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생활습관이 바르지 못하면 이 바르지 못한 습관에 몸이나 마음이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구리가 가게 된다.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장기화 한다는 것은 신체와 정신을 병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가령 성인병이라고 흔히 부르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병들도 오랜 개인의 식생활습관이나 운동습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성격적으로 성인병을 훨씬 잘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된 습관이 누적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바른 생활습관을 갖자.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쇼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번민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너머 저멀리, 깨달음의 발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차원 높은 지적 유희가 바로 선(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범입성(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옴뚱어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임 RINZAI 제
조 JOSHU 주
마 MATZU 조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갑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 그는 감초가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밭을 완전히 갈아 엎는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타마 붓다의 시대로 돌아간다. 스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건져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한다.

법구경 (上) (下)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 가지 명상비법 무삭제 완역공개
인생을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황홀하게 살 것인가?
목마른 영혼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이 없이 삶에의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메마른 의식과 안일한 삶의 태도에서 이젠 깨어나십시오!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아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탄트라 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

"성지순례 자기탐구의 길"

인도기행기 10여종 나와 … 불자들에 '인기 꾸준'



◇ 10여종에 이르는 인도여행기는 물질만능의 현대사회에 대한 문명비판서로도 읽힌다.

고은시인은 그의 인도순례기 〈황오천축국전〉에서 "인도의 길은 나 자신의 길이었다"고 토로했다.

왜 인도일까. 극단적인 가난과 더러움, 1백가지가 넘는 계급차별 등 부조리의 땅이 어떻게 '나의 길'이 되고 '내안에서 불뿜는 사원'이 되는 것일까.

부처님의 땅. 그 체취를 더듬고자 하는 불교인에게 인도는 거룩한 땅이며, 죽기 전에 한번은 밟아야 할 곳이다. 단연 성지순례 코스의 첫번째로 꼽힌다. 인도현지의 우기가 끝나면서 또다시 순례자의 행렬이 줄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성지순례 또한 사전준비가 부실하면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불서전문서점에 나와있는 인도 여행기만도 10여종에 이른다. 이들 책은 인도순례의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있어 불자들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풍물사진을 곁들인 여행기인만큼 읽는 재미도 크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책은 법정스님의 〈인도기행〉(샘터). 89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인도에 머물며 불교성지를 중심으로 순례하고 있다.

법정스님은 이 책에서 "여행은 자기탐구의 길이라는 교훈을 인도여행에서 얻었다"라며 "고정관념의 늪을 털고 일어섬으로써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양식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불교성지를 중심으로 쓴 여행기는 〈인도불적답사기〉(효진, 불교시대사) 〈인도와 네팔의 성지순례〉(정각, 불광출판부) 〈걸망여행〉(동학사학승, 불지사) 〈인도의 여정〉(정병조, 대원정사) 등으로 룸비니 카필라성 녹야원 루시나가라 등 4성지 혹은 8성지를 순례 코스로 잡아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는 부처님의 족적을 뒤쫓고 있다.

부처님 탄생에서 열반 족적 뒤쫓아
문명에 찌든 현대인 '정신적 귀의처'

〈인도불적답사기〉는 92년 1월1일부터 2월8일까지의 순례일정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형식으로 서술, 역사적인 부처님, 인간적인 부처님을 찾는 구도기의 면모를 보여준다.

〈걸망여행〉에서는 부록으로 20일 동안의 자세한 일정표와 필요한 준비물을 싣고 있어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임현담, 효형출판사) 〈인도기행〉(강석경, 민음사) 〈오오, 인도여〉(윤재헌, 서로출판사) 〈인도방랑〉(후지와라, 한양출판) 과 같은 책들은 인도를 불교성지로서보다는 정신적 귀의처로서의 인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들 책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인도야말로 내 삶을 본질적으로 뒤바꿔놓을 만큼 벅찬 감동이 존재한다"며 "언젠가부터 인도를 꿈구어왔다"는 말로 인도와의 인연을 설명한다.

한편 인도여행기는 "나는 나의 육신이 얼마나 문명에 찌들려있었나를 인도에 살면서 절감해 본다"는 고백처럼 물질만능의 현대사회에 대한 문명비판서이며 자기탐구의 구도기이기도 하다.

정성운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달 평균 1만5천7백원을 들여 2.9권의 책을 구입하고 있으며, 한달에 2~3회 서점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도서정보잡지 '뿌리와 날개' 9월호에 발표된 '독서 라이프스타일'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는 전국의 16세 이상 남녀 72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됐다.

"도서구입 한달 평균 2.9권"

독서스타일 조사 20대 독서량 가장 많아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연령층은 20~25세(32.4%)이며, 30대로 접어들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졌다가(1.6%), 40대에 이르러 완만하게 상승하는(4.1%)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 종이로 인쇄된 책은 어떻게 변하리라고 생각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46.9%가 '뉴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종이책도 더 발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종이책의 보급은 위축되지만 더욱 고급화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39.9%로 책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뉴미디어에 밀려 종이책은 사라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한 사람도 9.1%나 되었다.

한편 책구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은 신문의 서평 또는 신간안내(29.9%), 신문의 책광고(21.2%)의 순이었으며, 그 다음이 잡지의 서평·신간안내(10.2%), 신문·잡지에 발표되는 베스트셀러 순위(5.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소설 선	고 은	창작과비평사
2	달마의 제자들	고우영	불지사
3	영가천혼법어	석성우	토 방
4	하산	홍 주	불지사
5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자 우	밀 알
6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	임현담	효 형
7	삶에서 깨어나기	틱낙한	장경각
8	절로가는 마음	신영훈	책만드는 집
9	보문품강화	법 령	관 음
10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강우방	대원사

구입문의:(02)737-0695

천태지자대사 '대지관좌선법' 김무득씨 최초완역 5권 출간



천태지자대사의 〈대지관좌선법〉이 재야불교학자인 김무득씨에 의해 최초로 완역, 전5권 분량으로 운주사에서 출판됐다. 〈본지 14호 참조〉

대지관좌선법은 달마선과 함께 선수행의 2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지관선의 수행법을 자세히 밝힌 선수행서.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 또한 어려워 일본에서도 번역되지 않았다.

지관법은 인도의 전통적 수행법으로 석가세존에 의해 구체화된 수행방법이다. '지(止)'란 마음을 굳게 가지고서 일체의 외부대상이나 내부의 상념에 흔들리지 않고 특정한 대상에 집중시키는 것이며, '관(觀)'은 마음 속에 바른 지혜를 일으켜서 대상의 실상을 그대로 꿰뚫어보는 것을 말한다.

번역을 마친 김무득씨는 "달마선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지관선에 대한 이해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 책을 통해 달마선에 편향된 한국불교 선학의 불균형이 바로잡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8일부터 독서주간

도서교환등 행사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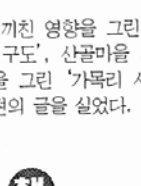
9월 첫째주는 독서주간.

국민독서진흥회를 비롯한 출판문화단체는 한달동안 백일장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주요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명/기간·장소/주관기관)

△ 알뜰도서교환시장/9.1~30/새마을문고중앙회 △청소년권장도서목록 배포/9.19~10.14·서울 용산구민회관 등 전국 14곳/새마을문고중앙회 △도서관문화학교/9.1~10.24/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어린이 독서교실/9.1~24/부산 명장도서관 △어머니 독서대학/9.20~22/영등포도서관 △1일 독서교실/9.21/춘천시립도서관 △알뜰도서교환전/9.23~24/인천 부평도서관 △고전읽기 백일장대회/24일 오후1시·서울재동국교/국민도서문화진흥회.

'무엇하러들 오셨는가'

돈연스님, 에세이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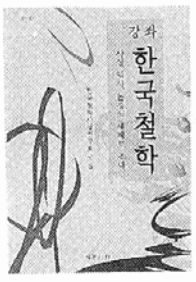
◇ 돈연스님

강원도 산골 사찰에서 농사짓기와 수행에만 전념해오고 있는 돈연스님(전 경전연구소장)이 에세이집 〈무엇하러들 오셨는가〉를 미학사에서 펴냈다.

지난 93년 환속으로 화제를 일으켰던 돈연스님은 이 책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을 그린 '무너지는 구도', 산골마을 사람들의 삶을 그린 '가목리 사람들' 등 10편의 글을 실었다.

화제의 책

강좌한국철학 철학사상연구회 지음



지금까지의 한국철학사 연구성과물인 〈조선철학사〉(북한에서 발행)나 한국철학회에서 펴낸 〈한국철학사〉는 유물론적 도식에 얽매어 있거나, 근대 이후 현대까지의 시기는 전혀 언급하지 못한 맹점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철학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의 발간은 한국철학계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교선·유불·돈점논쟁 심도있게 분석

〈강좌 한국철학〉은 남북을 통틀어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철학사를 서술한 최초의 책. 한국철학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단순한 철학사 서술만으로 그치지 않고 '사상별로 본 한국철학' '시대별로 본 한국철학' '논쟁별로 본 한국철학'으로 나누어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논쟁별로 본 한국철학'에서는 교선논쟁 유불논쟁 돈점논쟁 등 한국철학사의 중요한 논쟁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평가를 시도했다. 〈예문서원, 1만2천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불교요가입문



정재각 (전 정신문화연구원장)

'불교요가입문'의 저자 이시마(飯島貫實)는 일본입정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미국 하드포드신학교에서 기독교를 수학했다. 1939년에 동경에서 일본군벌정부에 천황신앙의 위험성을 간언하다가 마침내 미국으로 망명하여 로스앤젤레스에서 불교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그간 동서고금의 종교에 정통하고 일변 심신수련에 정진하였으며 인도요가의 달인이기도 하다. 이 저서는 저자가 서문에서도 스스로 밝혔듯이 40년간의 대장경연구와 2만회의 수중수행, 1만회의 설법체험의 산물이라고 한다.

여기에 이 저술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심신건강을 본래 진정한 불교를 통하여 터득하고 그러한 단련을 거듭하여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평이하고 접근하기 쉬운 설명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일반종교는 현세적 인간존재의 본체를 분석하는 안목이 깊지 못하다고 본다. 이 세상에서 신체만의 인간이나 정신만의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인 이상 신체와 정신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데도 일반종교가는 흔히 마음을 육체하고는 전연 별개로 존재하는것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현세인간이 심신일체의 존재인데도 종교가 마음만의 병을 치료하고, 의학 특히 서양의학이 신체만의 병을 다룬다면 인간의 완전한 건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뻔한 일이다. 요즈음 비로소 심신의학이라고 하여 양자의 관계에 주목하는 의학이 출현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주류는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자는 불교를 재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석가모니가 태자로서 궁정에 있을 때는 주로 전설적 교양으로써 베다경계통의 브라만교를 익혔으나 그 형식주의를 미흡하게 생각해오다가 출가 후에는 당시로서는 신흥종교라고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경을 중심한 사상을 섭렵하고 겸하여 이미 5백년의 역사를 가진 주로 육체적 수련으로써 해탈을 얻으려는 요가도(道)까지 통달했다고 한다.

따라서 고행무익설은 고행쯀업설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태자시대에 이미 석가 자신이 권법의 달인이었고 그의 장사 때에 그의 관을 멘 것이 또한 권사들이었다는 설과 서기 5백년경 인도에서

수행과 심신의학 상관관계 다뤄
불경연구·체험 토대 단련법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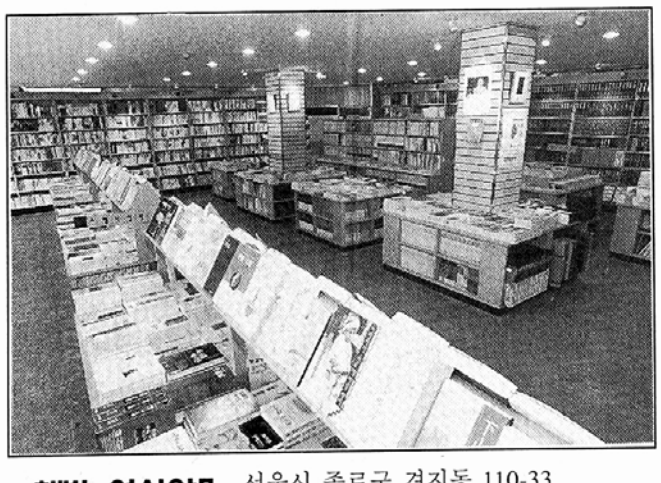
불교전도를 위하여 중국에 온 달마대사가 현존하는 소림사에 머물면서 좌선행과 동시에 역근행이라는 일종의 요가적인 권법을 전수하였다는 전설은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도에서 요가가 정신과 신체의 양향(兩向)에서 해석되고 신체의 진정한 건강을 이룩하기 위하여 요가를 훈련하고 그럼으로써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은 오늘날 불교의 참선에서도 면면히 남아 있다.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좌법과 명상이 강조되고 있으나 올바른 좌법을 익히기 위하여서는 요가적인 도인(導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불교가 시초부터 심신일체의 견지를 가지고 수련해온 전통은 심신의학이라는 과학적 의견에서도 가장 선각적 종교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불을가득,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

길 찾는 이의 도반,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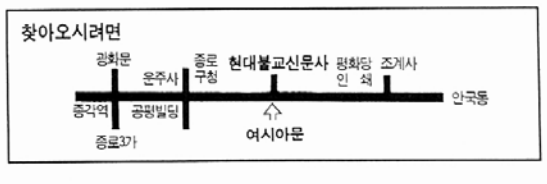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려면



만나봅시다 백제문화개발연구원 김보현 원장

"백제연구는 민족뿌리 찾기"

신라 앞서 불교전래 서민 중심 문화
유적발굴·자료수집 총람 발간 계획



"신라보다 앞서 불교가 전래된 백제는 불교문화가 서민층까지 파고들 만큼 기반이 넓었고, 귀족층 위주의 신라불교문화에 비해 예술성과 조형기술이 더욱 뛰어났습니다."

최근 〈계룡산 지역의 유적과 유물〉을 발간하는등 백제문화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사업을 벌이고 있는 백제문화개발연구원 김보현원장(전 농수산부 장관)은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소멸이 나·당 연합군에 의한 대대적인 문화 말살 정책과 일제강점시기 일본에 의한 조직적인 문화재 약탈에 기인했다"며 "그나마 남은 유물·유적에 대한 보존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일본문화의 원류가 백제문화라는 점을 감추기 위해 수십대의 트럭으로 백제 지역 문화재를 일본으로 옮겨간 사실은 백제문화의 씨를 말리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백제권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은 이같은 문헌 유물 유적 등의 자료부족에 기인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자료가 부족하기에 연구기관과 연구서가 태부족한 실정에 이른 것이다.

이를 볼 때 지난 82년 최원석 동아그룹회장(同연구원 이사장)의 문화재단설립으로 개원한 이래 연구원이 꾸준히 진행해 온 25건의 백제유적지 발굴 지원사업과 50여권의 연구서 발간, 30여권의 각종 학술행사 지원사업은 백제사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백제연구논저총람〉이 연구자들의 요청으로 복간되는 등 학계의 좋은 호응을 얻고, 최근 일고있는 백제문화권 개발 붐에 일조한 것이 보람"이라고 자부하는 그는 비영리법인답게 요란스럽지 않은 차분한 연구사업을 통해 백제사 복원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백제유적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진 그는 지난해부터 2차에 걸쳐 '일본의 백제문화 뿌리 찾기'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5년내로 조사를 완료, 연구서를 낼 계획이다.

또 3년안에 〈백제유적도록〉을 완성하고, 97년까지 사진 도면 문헌 설화 등의 자료를 보완해 백제의 문화·역사를 총망라하는 〈백제문화유적총람〉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불심시심 〈31〉

솔 풍금으로 보내다

蓬萊問道道無二 (봉래문도도무이) 봉래산에서 물은 도, 도는 둘이 아니었고
香嶽重逢只此心 (향악중봉지차심) 묘향산에서 다시 만났어도 역시 이 마음뿐
日暮柴門相送處 (일모시문상송처) 해 저물어 사립문 밖 보내는 때에도
滿山松檜起風琴 (만산송회기풍금) 온 산의 소나무 제 바람에 제 거문고 소리

이 시도 편양대사가 신처사(申處士)라는 사람에게 준 시이다. 지난 호에 소개한 최생에게 주었던 시와 같이 세속의 선비에게 격의 없는 회포를 표하고 있다.

봉래산에서 만나 서로 각기 걷고 있는 길을 논의한 적이 있지만 그 길은 둘이 아닌 하나였다. 그렇다. 승·속이라는 차이에서 걷고 있는 길이 다를지 모르지만 가고 있는 지향점은 다를 것이 없다. 누구나 참다움의 실상을 추구할 때 그 실상의 외형은 다를지 모르지만 참다움이라는 실체에는 둘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하나의 마음이었다.

오늘 그 하나였던 마음이 묘향산에서 만났다. 비록 만남의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역시 그 하나로 통했던 그 마음 그대로이다. 승속의 벽을 뛰어넘은 막힘 없는 사귐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시로 표현하자니 '다만 이 마음이거라' 하였지 말없이 오가는 마음일 것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한동안 무언의 교신이 오갔으리라.

이렇듯 말과 말을 초월한 대화에서 시간의 흐름을 잊었다. 어느 사이 저무는 해이다. 작별의 자리로 옮겨진 사립문이다. 세속과 절간을 경계짓는 한계로서의 사립문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의 걸음은 여기서부터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역시 말이 없다. 이것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났다. 더이상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때 온 산에 솔바람이 인다. 이 솔바람 소리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마음을 튕겨주는 거문고 소리이자 그 소리가 이는 거문고의 줄이다. 두 사람을 이어 주는 현의 이 끝과 저 끝이다.

여기서 더더욱 묘함은 바람거문고인 것이다. 바람 소리라 하면 소나무의 움직임이 없고, 솔소리라 하면 바람이 설 곳이 없다. 차라리 거문고 소리라 함이 두 물체의 사이와 그 대경에 서있는 주객의 실체도 함께 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종찬 〈동국대 교수〉

"위대한 성보" 감탄의 인산인해

18만명 관람 "우리문화 긍지"
26일부터 용인서 연장 전시

지난 10일 막내린 大고려국보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6일 삼성문화재단 김재열 학예연구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삼성문화재단과 중앙일보, SBS가 공동 주최한 「대고려국보전-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1)」이 지난 7월15일 호암미술관에서 시작, 지난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18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최대 수월관음도를 비롯 불화 11점, 사경판경 5점, 불상 10점, 범종 등 국내외에 흩어진 문화재 2백66점이 전시됐던 「대고려국보전」에 하루평균 평일에는 3천여명, 주말에는 6천여명의 사람들이 다녀간 것.

이번 전시회가 신라·조선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공간'으로 방치됐던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기회가 됐을 뿐 아니라 고려시대에 대한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고, 고려미술 즉 불교문화의 위대성을 온전하게 재평가하는 계기가 된 전시회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 문화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실물(實物)을 쉽게 볼 수 없었던 일반인들의 문화적 갈증을 시원스레 충족시킨 산 역사의 장이었다는 전문가들의 평도 높았다.

호암미술관은 연일 호황을 이뤘던 것을 감안, 해외소장품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내미술관에서 빌려온 전시품을 제외한 자체 소장품만을 따로 모아 오는 26일부터 올해말까지 경기도 용인군에 위치한 호암미술관에서 '고려명품전'이란 이름으로 별도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6일 불교문화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호암미술관 관장 홍라희씨와 학예연구실장 김재열씨에게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했다.

도필선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50돌
전시·강연등 행사 풍성

우리 현대사와 영욕을 함께 해 온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1일 개관 50돌을 맞았다. 〈관장 인터뷰 7면〉

이에따라 박물관은 지난 11일부터 한달간 기념전시회, 학술강연회등 다채로운 개관 50주년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시회 「국립박물관 50주년 발자취전」은 박물관 변천사를 담은 사진자료와 전시회포스터, 유적발굴 보고서 등 모두 2백50여점의 전시자료를 통해 박물관의 옛 모습을 회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별전시회에는 또 첫 '유럽순회전(61년)', 국내 처음으로 제작된 '덕수궁 관화 5인전(63년)'등 전시홍보를 위해 제작한 초창기 시절 포스터부터 올해 열린 '알타이 문명전' 까지의 포스터등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능산리 백제고분 출토 용봉향로 복각품 시판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1일 93년 부여 능산리 백제고분 건물지에서 발굴된 금동용봉봉래산향로(金銅龍鳳蓬萊山香爐)를 복각품으로 제작, 판매에 들어갔다.

실물크기(높이 64㎝)와 축소형(높이 28㎝) 2종으로 제작된 이 제품은 재외공관과 해외문화원 각급 박물관 학술기관등에 보급되고 전국 박물관의 관매점과 백화점등에서 판매된다.

실물크기는 2백90만원이며 축소형은 50만원.

'붓다의 메아리' 공연
조계사청년회, 보리수합창단

조계사청년회(회장 이성상)는 조계사 만불보전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보리수 합창단 제17회 정기합창연주회 '붓다의 메아리'공연을 오는 31일 토요일 오후7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갖는다.

순수아마추어 남녀 혼성 합창단인 보리수합창단(단장 김청청화)은 이번 정기공연을 통해 '마음의 불씨' '옴마니반메훔' '연꽃으로 다리놓아' '오늘은 기쁜 날' 등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을 합창으로 들려줄 계획이다.

"예술 통해 탐욕 씻자"
'맑고 향기롭게…' 춘천 조각전

맑고 향기롭게 춘천모임(회장 함영식)이 지난 2일부터 11월6일까지 춘천 칠송동 의암산장에서 '야외조각전'을 개최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해 탐욕을 정화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이번 전시는 모란미술관에 출품하는 30대 젊은 작가들의 작품 18점이 전시된다.

참여작가는 김성북 김무기 김일태 송바우 송광희 이민수 설인숙 임영호 김동헌 정길택 정기웅 전덕태 이강모 씨등 13명이다.

한국민화 15인 걸작선
목아박물관서 병풍등 전시

목아박물관 초대 '한국민화 15인 걸작전'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목아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한국박물관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걸작전에는 정복석 김상철 정승희 이순귀 이정동 윤인수 전연숙 이영옥 김철완 권오규 박수학 이규완 등 15인이 참여, 서민들의 의식과 생활상을 그림에 그대로 표현한 동래부사행렬도, 일월도 십장생도 군학도 등 병풍 8점, 액자 32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탈아나가는 불교

백현순 무용단이 「空-우리는 무엇이고 싶다」는 테마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간 대구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전국무용제에서 대구 대표팀으로 참가, 지난 15일 불교무용으로 촘사위를 벌였다.

空사상과 인간욕망 대비
백현순무용단 전국무용제 참가

전국 14개시도(서울제외)의 대표 무용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무용대축제에서 백현순 무용단은 불교의 '空'사상에 인간의 욕망과 바람등을 접목시켜 순수한 인간에서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 다시 순수한 인간으로 돌아오는 근원 회귀적인 모습을 표현했다.

월간 대중불교 9월호



정법의 눈
쇠북소리 미움의 정치 / 정경희
특집 20주기 추모특집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삶과 원력/이용림
특집기획 우리 속의 왜색문화
'우리' 만화를 위한 변호 / 정준영
화투 속에 담긴 부끄러운 역사 / 박영하
개발의 빈곤과 수입의 과잉 / 김남석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생명의 모태, 바다가 죽는다 / 성낙진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얼과 문화 경주남산의 감실 부처/김호형·김성철
폐사지를 찾아서
강화 봉은사지 / 김상영·최태선
불교와 민속 불교와 꼭두각시놀이/김종대
전통과 오늘 사이
함께 사는 사회의 불가명절/서동석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건축사학자 신영훈 씨 / 김희균
수행으로 가는 길(6)/삼성각
바른 기도와 발원 / 이제열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8)
대승의 꽃, 보시 바라밀 / 용타
교리산책/업(9) 정업과 부정업 / 정승석
에세이 보살불교(9)/지장보살(2)
지옥은 실존이다 / 일지
나의 수행담
물러설 수 없는 깨침의 세계로 / 대원성
스님께 듣습니다
염불하는 마음이 곧 극락이지요/태원·김희균
일상을 깨우는 산문들
수행길의 이런 도반
푸른 대쪽 같은 청화 스님 / 효림
큰스님의 그늘
양 다리 밑에 하늘이 있고/정복주
포교당 일기 부처님의 다이어트 법 /원욱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정복주·이시운·장춘석
해외 불교 읽기
흰생의나라, 티벳(3) 영성과 비극의 나라/김선정
모스크바의 원불교 한글학교
버려진 땅에서 일어선 고려인을 위하여/김희균
봉주우르, 길상 토요 전각교실 / 지묵
탈아나가는 불교
포교의 현장 불교생활문화 터전 닦는 노원구 법륜왕사 / 오경숙
신행단체 대한불교청년회 경남지구 산해원지부 / 황용수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

전세계 기독교회에 보내는 오쇼 라즈니쉬의 최후통첩
기독교와 禪

기독교가 미쳤는가? 라즈니쉬가 미쳤는가?
'정신적인 테러리스트', 라즈니쉬는 이 책에서 예리하고 투명한 선(禪)의 칼로 기독교계의 실상과 함께 기독교 믿음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낱낱히 질타하고 있다.
편협한 기독교인들은 당신이 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 책을 "형식적인 기독교의 옷을 벗고 참된 그리스도가 되라!"는 라즈니쉬의 사랑어린 충고로 받아들일 것이다.
356면/값 7,000원
라즈니쉬 유머집의 총결정판 베스트셀러
자혜로운 자의 농담 탈이데올로기·탈종교·탈지식 유머위주 삶을 아름다운 농담처럼! 값 5,000원
정신문화사 Tel. 714-4273 Fax. 711-4715

출판·편집 안내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기록은 영원합니다. 도서출판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는 물론 보통사람들의 자서전·회고록·개인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광고를 해 드립니다.
◎자서전 ◎회고록 ◎출판대행
◎수필집 ◎시 집 ◎편집대행
※ 인생 경험과 자나온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출판 기획만 원하시는 분, 출판 아이디어나 출판 예정인 원고가 준비된 분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방문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제작도 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번지 2호 선덕빌딩 3층
전화 : (02)725-6752~4
팩스 : (02)725-6920



◇ 홍법원을 근거로 미국 포교의 결실이 익어가는 가운데 미국인 제자가 출가를 하기도 했다. 사진은 법회에서 설법을 듣는 미국인 제자들.

푸른 눈 먹물 옷 입은 제자 탄생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8v

지구촌 전법이야기

숭산 스님 ⑧

쪽지에 적어준 공안은 3천장에 이르고
홍법원 중심 미국포교는 차츰 결실단계

낯선 미국인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것은 미국인의 입장에서나 가르치는 행원스님의 입장에서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가르치는 쪽에서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배우는 쪽에서는 그 생소한 수행법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파트 법당의 수좌들은 열심이었다. 눈빛과 눈빛으로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를 알아채는 정도까지 다다르고부터는 생활 자체에 하나의 질서가 부여될 수 있었다.

행원스님이 단어를 써 놓으면 제자들은 그 단어들을 꿰어 맞춰서 법문으로 만들곤했다. 그런 단어와 단어들을 통한 의사소통은 다름아닌 공안이되고 있었다. 참선에서의 화두란 식사를 하는데 있어 숟가락이나 포크가 하는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미국의 수좌들. 그들에게 쪽지에 적어 준 스님의 공안은 그날의 수행과제이기도 했던 것인데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 3천장에 이르렀다.

이제 미국생활에 대한 요령이 생기고 벽안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삶에 수행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키고 있을 무렵 재미 홍법원을 세웠다. 72년 9월의 일이었는데 그해에는 뉴욕에 삼보사도 세워졌다.

삼보사는 당시의 정달스님이 세운 것이었고 73년 1월에는 구산스님이 삼보사와 홍법원을 다녀갔다. 또 혜정스님도 미국의 법당을 다녀갔고 계정스님도 미국으로 바랑을 지고 왔다. 계정스님은 행원스님의 초청을 받아 왔는데 도착즉시 달마사를 개원해 포교에 들어갔다.

정달스님도 행원스님처럼 일을해야만 했다. 신발공장을 다니며 돈을 벌지 않으면 않됐던 것이다. 미국땅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곳이었고 이방인에게 정신의 지도자로 자리잡기에는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우선적이었던 것이기도 했다.

미국제자들은 언제나처럼 낮에 일하고 저녁에 참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참선을 하고는 일터로 나갔다. 참선도 잘했지만 절도 잘했다. 애당초 김정선교수가 "미국애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절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시키지 말라"던 충고는 이제 무색하게 되었다. 행원스님은 그 개인주의에 빠진 제자들에게 한국 절에서 소임을 나누듯이 한가지씩 소임을 맡겨 그 일에 대해서 만큼은 책임을 지게 했던 것이다. 시키는 것에 대한 복종은 잘 안해도 자기의 소임에 대한 책임감은 무서우리만치 철저한 것이 미국인들이었다.

아무튼 스님은 미국의 제자들과 또 하나의 도전을 했다. 그것은 돈 모으기 원력이었다. 여름 어느날의 제안은 이런 것이었다. "자, 이제 너희 10명과 나를 합해서 열한명은 3개월간 열심히 일을 해서 1인당 천불씩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11명의 식구는 더 배고프고 더 알뜰하게 살아내야 했지만 석달 후에는 1만1천불이 생기게 됐다.

그 돈으로 산 것이 홍법원 4층집이었던 것이다. 뉴욕에 홍법원을 세운 것은 스님 개인의 일이기도 했지만 한국불교가 정식으로 미국에 전법의 물줄기를 댄 것이기도 했다.

홍법원을 근거지로 해서 미국포교는 거듭거듭 발전해 나갔다. 스티븐이라는 제자는 무각(無覺)이라는 법명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보스톤에 선방을 열어 잘 운영했다. 그곳에 행원스님은 진경, 법안스님등을 초청하기도 했다.

뉴헤븐에 낸 선방에는 예일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왔고 데이브, 스티브, 바브 등 교수들이 중심이되어 선방을 이끌었다.

각지에 선원이 생겨나면서부터 행원스님은 제자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공부시키고 그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심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래서 선원마다 선원장과 입승, 원주, 교무 등의 소임자를 정했다. 그들을 하나씩의 소임으로 스스로 할 일을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의 깊이를 재는 일이었다.

처음 입문해서 3~4개월은 기초교리를 가르치며 불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된다. 두어차례 용맹정진을 시킴으로 그의 인내력과 불교에 대한 열의를 체크하기도 했다. 그 단계가 지나면 5계를 설하고 다시 1년이상 선공부를 시킨다. 행원스님이 만든 '선의 나침판'이란 공안집을 막힘없이 흩으면 일단 식견의 물꼬가 튼 것으로 여길 수 있어 시험을 치르게 했다. 그 시험을 넘어서면 법사로 불렀다. 법사를 명명받고도 5년가량 더 공부해 천칠백 공안을 마음으로 다스리는 정도가 되면 지도법사 자격을 주었다. 그래서 선원을 맡기고 신자들을 지도하게 했던 것이다.

출가에 대한 간절함이 깃든 사람은 출가수행도 가능케 했으므로 푸른 눈에 먹물옷을 걸친 제자도 생기게 됐다.

아무튼 행원스님의 미국포교는 여여하게 흐르는 물처럼 시간을 따라 마당도 넓어지고 결실 거두게 되었다.

임연태 기자

'身土不二'는 보도스님의 게송

"法身은 찬란한 大地" 690년전 용어
東大 오형근교수 밝혀…BBS 추석날 방송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어원이 불교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91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 우리 농산물애용운동의 슬로건으로 떠오른 '신토불이'란 용어는 690년전인 1305년 중국 원나라의 보도(普度)스님이 지은 게송의 제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불교방송은 추석인 지난 9일 아침 8시 'BBS 뉴스광장'에서 동국대 불교학과 오형근교수의 말을 인용 '신토불이'는 보도스님의 게송제목임을 밝혔다. 오교수에 따르면 보도스님 저술인 〈여산연종보감(廬山蓮宗寶鑑)에 비로자나불의 법신과 대지(大地)는 한몸과 같다는 뜻의 게송이 '신토불이'란 제목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로는 곧 적광토요 (毘盧卽是寂光土)
적광은 곧 대비로이다 (寂光卽是大毘盧)
몸과 흙은 본래 두가지 모습이 아니며 (身土本來無二相)
황성은 원래 대경도이다 (皇城元是大京都)

즉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은 곧 빛나는 대지이며 몸과 흙은 본래 둘이 아니란 뜻이다.

"보도스님의 이 '신토불이' 게송은 현재 국산농산물 애용운동의 슬로건과 다소 인상적 차이가 있으나 큰 의미에서는 통하는 바가 많다"는 오교수는 "그간 '신토불이'의 어원을 모른 채 사용해 오다가 불교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글귀와 사상이 있었음이 확인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방송의 뉴스를 접한 공보처의 한 관계자(과장급)는 연휴직후인 지난 11일 동국대로 오교수를 방문, 보다 정확한 전거가 기록된 논문집 〈불교의 물질과 시간론〉을 구입해 갔다. 그는 또 오교수에게 "나는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불교계에서 이미 6백90년전의 게송 제목이었던 '신토불이'를 찾아 매우 기쁘며 그 의미도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토불이'와 관련한 사상은 불교에서 '색신불이(色身不二)'라는 〈기신론〉의 귀절이나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부분이나 모두 통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임연태 기자

BBS '천수천안' 새 진행자 김 양 일 씨



4년 투병딛고 제2의 방송인생 시작

"불보살님들의 가피력으로 이렇게 회복됐습니다.불교방송에서 제 2의 방송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91년 불교방송 출근도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만 4년간 투병을 해온 김양일씨가 지난 11일부터 시사프로그램인 '생방송 천수천안' 진행을 맡았다.

"투병생활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데 힘썼습니다. 몸의 불편함보다도 더 힘든 것은 방송을 못한다는 좌절감이었지만 부처님께 다시 나아가 방송할 날이 오리라는 확신은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4년의 세월은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신과의 투쟁이었다는 그는 왼쪽 몸부위의 신경마비를 운동으로 극복했다고 한다.

탁월한 시사감각과 객관적인 논평으로 잘 알려진 김양일씨는 28년의 방송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으로 불교정신을 통해 민감한 시사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불교방송에서 방송인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김양일씨는 67년 동양방송에 입사하여 KBS 보도국에 근무하며 초창기 '추적 60분'을 진행했으며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방송위원으로 영입됐었다.

김양일씨는 불교방송 개국 한달뒤인 90년 6월부터 시사프로 아침저널을 진행했었다.

〈원〉

방송가소식

'불교의 장인·예인 17인' btn 영상사업부 제작

불교텔레비전 영상사업부는 '불교의 장인 예인 17인'을 제작한다.

제 1편으로는 불화의 대가인 인간문화재 48호 '만봉스님'편을 지난 1일부터 제작중이다.

불교장인은 이광규, 원광식, 정문길씨등 8인과 송암, 일응스님 이매방 한동희씨등 9인의 예인을 비디오로 제작한다.

이동인 스님 유묵 추가 발견

불교방송은 최근 이동인 스님의 유묵 2점을 추가로 국내에서 발견했다.

이 유묵은 이동인 스님이 일본의 오꾸무라엔싱에게 보낸 것으로 가로 68센티 세로 15센티의 크기이다. 특히 이 유묵은 유일하게 이동인 스님의 동경주소와 이름이 적혀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묵 2점은 진기스님(동대강사)과 범하스님(통도사 박물관장)이 소장해 왔다.

불교방송은 이 유묵의 역사적 가치를 조사하여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오후 5시 10분에서 6시까지 추가로 재방송할 계획이며 이달말경 7백쪽 분량의 '개화승 이동인' 자료집도 발간하여 교계및 학계에 배포할 방침이다.

'백팔가요' 광주 공개방송

불교방송 백팔가요에서는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광주시민을 위한 팝콘서트'를 연다.

탤런트 김나운씨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날 공개방송에는 이광조 이용 원미연 변진섭 박정운씨와 테너 김진원 소프라노 김윤자씨가 출연한다.

이에앞서 지난 17일 용인자연농원 특설무대에서는 오후 2시 이세훈씨의 진행으로 '가을사랑 국화옆에서'를 개최했다. 박정운 김정은 비타민 아낌없이 주는 나무 등이 출연했다.

BBS 교통통신원 체육대회

BBS교통통신원불자회(회장 양재국)는 내달 15일 한강 중지도에서 회원단합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목탁소리

불교방송 '살생부' 파문

불교방송이 '살생부(殺生簿)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 '살생부'란 용어가 적힌 문건이 불교방송 게시판에 붙은 것은 추석연휴가 끝난 지난 11일. '이런 살생부가 어디 있는가'란 제목의 대자보는 직원들이 술자리에서 노조설립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한 직원이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가 발견돼 공개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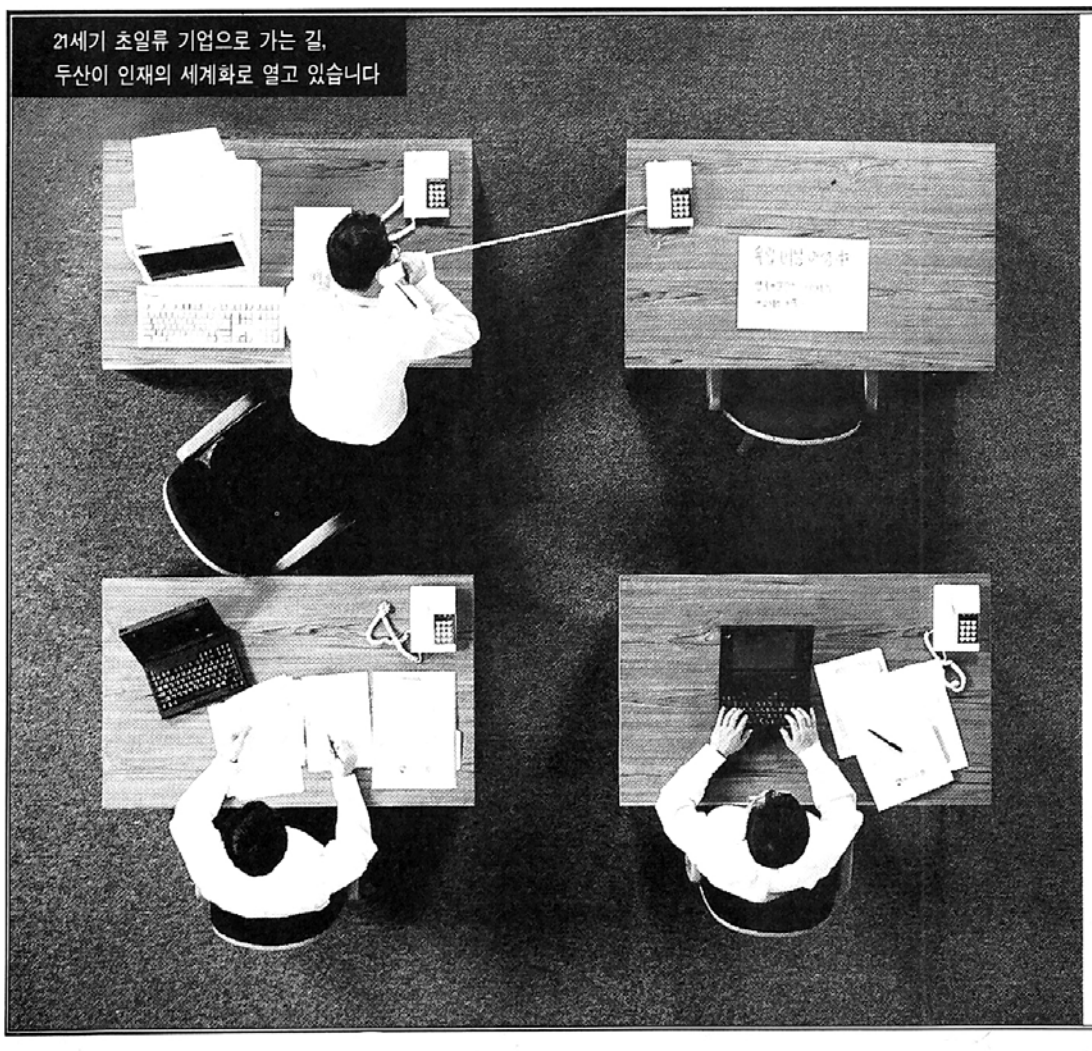
실제 대자보에 첨부된 보고용 문서는 '어떤 직원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나눴다'는 식의 첩보성 보고서였다. 이는 방송국내에 직원들의 언행을 감시하는 비밀 노선이 있음을 극명히 드러낸 것으로 문서에 이름이 오른 직원을 비롯 모든 직원들이 경악하고 있다.

이같은 대자보가 나붙은 뒤에도 방송국 측은 관련 해명이나 인사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직원들은 더욱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이름이 거론된 직원들은 "노조결성 등은 논의한 바도 없는데 거짓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하고 있어 당분간 불교방송은 이 문제로 진통을 면키 어렵게 됐다.

3. 26 생방송성명서파문 이후 조계종 불방특위와 신경전을 계속 벌여온 불교방송은 지난 5월 김태호 사장의 퇴임이후 계속 난항을 해왔던게 사실이다.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방송내용의 부실 등을 지적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또 제18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강한필사장 직무대행의 보직해임 건 등이 거론되고 있어 불교방송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같은 시기에 불거져 나온 '살생부파문'은 하루속히 꺼야할 불이 아닐 수 없다.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혼돈의 세계에 전하는 전법도량이다. 방송을 아끼고 성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다. 하루속히 전법도량의 면모를 다잡길 기대한다.



인재로 이어온 100년, 일류로 나아갈 100년

"지금, 배낭여행중입니다"

두산의 사원 500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인재 세계화의 새로운 길, 국내 최초의 사원 배낭여행으로 엽니다

세계화된 기업만이 21세기 초일류 기업-
두산은 인재의 세계화를 통해서 기업 제계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창의적으로 파악하도록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사원 배낭여행은 인재 세계화의 한 과정입니다.
국내외 장기 어학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해외지점의 현지인 운영체제,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세계화의 길은 과감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100년, 도전100년
斗山

중앙신도회 10월 결성 추진

조계종, 발기인대회·실무위 구성등 일정 밝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10월말 공식 출범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중앙신도회 결성을 위한 신행단체간담회를 갖고 10월28일 발기인대회 개최등 향후 일정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개혁종단출범과 함께 중앙신도회 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재가신행단체 관계자들과의 첫 회동으로 주목을 끌었다.

총무원 관계자는 "중앙신도회 결성에 따른 재가신행단체의 협조와 동의를 받고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무원 관계자와 재가연합, 여불련, 삼보회등 13개단체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14일 간담회에서 단체대표들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신도회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신도 자율성에 제한이 많은 신도법 개정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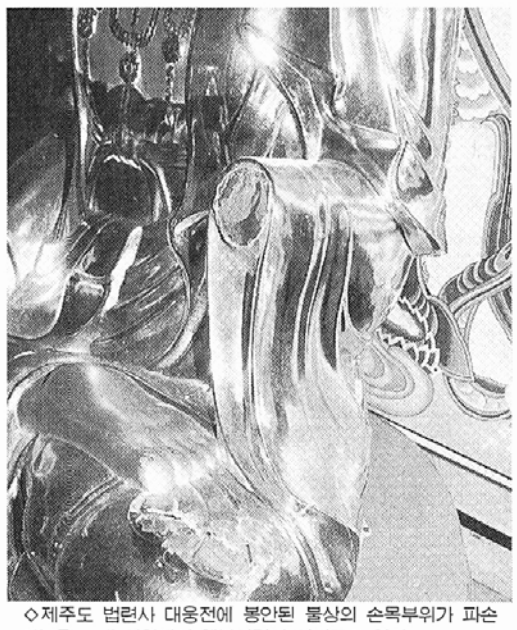
간담회에 앞서 총무원은 중앙신도회 결성 원칙과 발기인 동참, 실무위원회 구성, 향후 일정을 밝혔다. 또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법타스님(총무부장)을 추대했다.

총무원은 중앙신도회 구성원칙에 대해 "종단의 지도아래 교구·지역과 재가신행단체대표와 함께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본말사, 전국 규모 직능신행단체, 지역·개별 신행단체 대표를 주축으로 발기인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행단체대표들은 "재가신도의 자율성보다는 일방적으로 총무원 일정에 맞추어 중앙신도회 결성을 급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행 신도법에 따라 총무원이 주체가 되어 중앙신도회를 결성할 경우 명실상부한 재가불자 대표기구가 아닌 단일 신행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무원은 25일부터 1주일간 대전(25일), 광주(26일), 부산(27일), 대구(28일), 강원(29일), 서울(30일)에서 지역간담회를 개최하고 10월28일 중앙신도회 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제주도 법련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의 손목부위가 파손되는등 도내 일원에서 훼불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15일 '첫 삽'

내년 3월 이전 목표…99년 완공 예정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 제2캠퍼스(경기도 김포군 금정사 경내) 기공식이 지난 15일 월주스님(총무원장)등 총무원 간부스님과 중앙승가대 발전위원회 위원, 동문스님, 부산·경남 후원회 회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내년 3월 이전을 목표로 건립되는 새 교사는 부지 5만4천여평에 본부동, 강의동, 수행관 2개동 등 모두 4개 동과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전체 준공은 99년 9월 예정.

청소년수련원 건립 우이동 보광사

서울 우이동 보광사(주지 정일)에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된다.

보광사는 지난 1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청소년수련원 설치를 위해 공원계획을 변경키로 의결함에 따라 설립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광사 숙원사업인 청소년수련원은 그동안 부지가 자연환경지구로 묶여 건립이 지연됐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방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서울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에 공원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보광사가 건립 예정인 청소년수련원은 지하2층 지상1층 총면적 2천7백60평 규모다.

동국대 정보통신교육센터 설립

데이콤과 산학 협정…재택수업 가능

학교법인 동국학원에 정보통신 교육센터가 설립된다.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은 지난 15일 이사장실에서 (주)데이콤과 정보통신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산학협정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협정 내용은 데이콤에서 정보통신교육을 전담할 교육센터를 전자계산원에 설립하는 한편 시설일체와 교육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주)데이콤은 동국대 전자계산원 정보통신교육센터에 멀티미디어 PC기증(약 90대), 초고속 통신전용회선 설치, 교육관련장비일체 및 기술을 지원한다.

정보통신교육센터가 설립되면 재학생들에게 정보통신을 이용한 수업진행은 물론 천리안 매직콜을 통해 재택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관련 동국대 전자계산원 한범룡씨는 "향후 정보통신교육센터가 활성화 되면 전국 각 사찰의 현황과 불교문화재등을 데이터 뱅크화해 학계나 불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가불자연 조직개편

한국재가불자연합(상임회장 안동일)은 지난 6일 조계사 문화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공동회장에 여성계대표로 박정희(우영건설대표)씨를 영입하는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재불련은 김재일(동산반야회장)등 8명을 새부회장으로 추대하고 고문단과 지도위원을 보강했다.

또한 조직강화를 위해 법사학술·학계등 11개의 직능위원회를 구성했다.

평불협 운동기금 요청

평불협(상임부회장 법타)은 지난 5일 오는 10월로 예정된 '통일을 위한 남북한 법령 세미나' 등의 행사로 (사)시민운동지원기금에 5백만원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대불청회관 추진위 구성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회장 김규범)는 지난 4일 이사회에서 회관겁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이성주씨(초대회장)를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1백인 결사, 물품판매 계획을 세웠다.

한편 서울지구는 10월22일 동대중강당에서 실시될 불청대회의 집행위원회를 했다.

東大 경주 범종기공식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도업스님)은 지난 12일 오녹원이사장, 송석구총장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범종각 기공식을 거행했다.

경주캠퍼스 개교 18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건립되는 범종각은 5평의 규모에 8백관의 범종을 갖추고 96년 개교기념일에 낙성된다.

조계종 단일계단 수계산림 올 전계대화상에 일타스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혜암)는 제16차 단일계단 수계산림 전계대화상에 일타스님(은해사 주지)을 추대했다.

지난 12일 오후2시 총무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원로회의에서 올해 일타스님의 전계대화상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전계대화상의 추천대상과 임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3월과 9월 정기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원로회의 사무처를 조계사 안에 상설화시키기로 했다.

일타스님은 자운스님 후임으로 지난 93년 12월 전계대화상에 취임했다.

'소쩍새 사태' 논의 중앙승가대 이사회

중앙승가대학은 지난 6일 제2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쩍새마을 사태와 학교이전문제를 논의했다.

학교측으로부터 소쩍새마을 인수과정을 설명받은 이사회는 소쩍새마을 건으로 기공식 및 학사이전 문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학교관계자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의 사표가 수리됐다.

각밀스님·이경호씨 구속

경찰청특수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시 소쩍새마을 운영비리와 관련, 지난 11일 중앙승가대 각밀스님(전 교학국장)과 이경호씨(사회복지학 교수)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각밀스님과 이씨는 지난 7월11일 소쩍새마을 전 운영자로부터 일련에 대한 고소취하에 쓴다는 명목으로 1억5천만원, 1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34개 불교대학 등록인가

조계종 서류심사 확정

전국의 불교(교양)대학 가운데 조계종이 인가한 대학은 34개로 확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은 지난달 31일 불교대학종단등록을 마감하고 이날까지 접수된 40여개의 대학을 심사, 34개의 불교대에 등록증을 교부했다.

포교원 관계자는 "서류가 미비된 불교대학도 추후에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교부할 계획이다"고 밝혀 조계종 불교대학은 40여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에 조계종 불교대학으로 등록된 대학은 조계사 불교대학, 부산불교교육대학등 기존의 5개 조계종 산하 불교대학과 서울·경기 12개, 부산·경남 9개, 대구 3개, 전북 3개, 전남 2개 대학이다.

포교원은 앞으로 조계종 불교대학 실무자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은 자체에 일임 △필수과목 교재편찬 및 보급 △포교사고시 자격 부여(2년제 졸업자 논문 대체) △학제·교수 지원등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포교원은 10월중 실시하는 포교사고시에 앞서 지난 12일 예상문제집을 발간했다.

포교원이 발행한 포교사고시 예상문제집은 지난달 예상문제 개발팀(팀장 박경준교수·동국대)이 제출한 1천5백개의 문항 가운데 8백문항을 선정, 편찬됐다.

제주도내 불상들 잇단 훼손

봉원사·달성사등 피해…탱화·촛대도

최근 제주도내 사찰에서 불상과 탱화, 촛대 등이 심하게 훼손되는등 훼불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제주 성산읍 오조리 봉원사는 대웅전 불상이 팔뚝과 손가락부위가 절단되고 촛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5일에는 성산읍 신산리 달성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훼불사건이 있었으며 지난 1일과 3일 사이에는 남원읍 태흥리 법련사내 대웅전에 봉안된 3개의 불상과 탱화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또한 애월읍 보광사내 대웅전도 불상 4개가 파손된 바 있다.

이처럼 최근들어 잇달아 발생한 불상훼손사건은 불교를 음해하려는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과 사찰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으며, 사건현장에서 목격됐던 박모여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수사에 나섰다.

승가고시 조속 시행돼야

불학연구소 '시론' 개최…법계 확립 위해

종단체계의 확립과 바람직한 수행자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승가고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지난 13일 다원 녹수청산에서 '승가고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시론'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자로 나선 박충식연구원은 "승가고시실시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법계법이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계법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계법을 근거로 법납 15년이상이 된 사람에게 4급의 법계에 응시할 자격을 주어 선문답과 논강등 다양한 방법으로 깊이있는 고시가 행해져야 함을 주장했다.

동국대 '禪실습' 강좌 개설

"선은 멀리있지 않으며 선수행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활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나팔바지, 타이트한 재킷차림에 빠른 리듬의 랩음악을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1주일에 한번 부처님 도량을 찾아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에 든 모습이 주위의 눈길을 끈다.

동국대가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이번 학기에 처음 개설한 '선(禪)실습' 강좌가 열리는 정각원이 화제의 현장이다.

매주 화·목요일 열리는 강좌에는 3백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함에 따라 수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정각원 선실은 향상 초만원. 이는 따분한 지식습득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아를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감로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선실습강좌에는 먼저 선에 임하는 마음가짐, 선의 의미, 선의 자세 등에 대한 이론강의에 이어 곧바로 참선실수에 들어간다.

지도교수 혜원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춰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한 삼매에 든다.

이렇게 참선실수가 시작되면 정각원은 곧 선실이 되고 학생들은 스님 못지 않은 수행자가 된다.



◇동국대 학생들이 정각원에서 선실습을 지도받고 있다.

가부좌 틀고 선정 든 신세대들

혜원스님은 "대부분 수강생들이 초심자이기 때문에 선수행의 기본자세를 익히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거렸던 학생들은 평생 장군죽비의 따끔한 맛을 잊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불교 성지 순례

■ 여행조건 ●호텔: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 발 : 10월 17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 발 : 10월 13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출 발 : 9월 30일, 10월 21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인도·네팔 성지 순례 10일
—불교 7대 성지와 네팔의 불교사원 순례—
· 출 발 : 9월 27일, 10월 26일
· 동참금 : 160만원
· 일 정 : 서울—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녹야원)—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얌부넛 등)—서울

황산·구화산 6일
—지장보살도량 구화산 순례—
· 출 발 : 9월 28일, 10월 26일
· 동참금 : 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황산—구화산—상해—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 발 : 9월 30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10월 15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 출 발 : 10월 25일
· 동참금 : 65만원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佛心있어 더 좋은 '빛고을 미술잔치'

'95 광주 비엔날레 출품 불교조제작



◇고꼬 하따나까 作 「부처에 이르는 세개의 신성한 계단」



◇안성금 作 '붓다의 메아리'



◇신경호 作 '호'

불교정신과 현대미 접목한 작품 눈길

60개국 5백여명 참가…문화행사 1백10회 '볼거리' 다채

예술을 통해 세계가 만나는 '95 광주 비엔날레에 불자예술인들이 대거 참여, 불심 넘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 한국작가로 초대된 중광스님, 천수천, 안성금, 신경호씨 등의 불자예술인들은 불교의 전통적 소재와 사상을 차용해 현대적 미술형식속에 끼워넣거나 번안시켜 '세계속의 한국' '한국속의 세계'를 조화로운 만남으로 이끌어 내는 작품을 내놓는다. 또 박수근, 김관호, 김복진씨 등 고인(故人)의 작품들도 전통 불교정신을 통해 서구인들의 이국취향과 동양적 신비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살짝해 풀듯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 고꼬 하따나까씨의 작품 〈부처에 이르는 세개의 신성한 계단〉은 일본 현대미술의 불교정신 수용정도를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씨가 '정보예술전'에서 큐레이터로서뿐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춘향전〉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또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다.

11월20일까지 두달동안 광주 중외공원 문화벨트 일원 71만평 대지에서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95 광주 비엔날레는 국제전, 특별전, 기념전, 후원전의 4개 분야에 60여 개국 5백여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행사와 조상현·성창순·신영희씨등 명창들이 들려주는 판소리를 비롯, 민속 농악 무용 연예 음악 발레 등 무려 1백10여회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광주 비엔날레」는 지난날의 권위주의와 패권주의, 대립과 갈등, 폭력과 차별 등을 떨쳐버리는 인류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물론, 불자예술인들이 세계무대로 도약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도필선 기자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그 옛날 낙타를 타고 지나던 대상들의 길을 따라 가 본 한달동안의 실크로드 기행은 이집트를 선두로 요르단, 시리아, 이란 등 중동지방을 거쳐 터어키, 그리이스, 이탈리아로 이어졌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비롯해 여기저기 산재한 유적들을 볼때마다 인류 문화의 위대함에 대해 감탄과 감동은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러나 자연의 힘에 그리고 인간의 무력에 의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한 많은 유적지들을 보며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나 가치가 영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겼다.

중동의 이슬람과 유럽의 기독교간의 교류는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를 꽃피웠으나 종교간의 반목으로 인한 전쟁은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문명의 파괴를 남겨놓았다. 말 그대로 발에 채이는 인류 문화의 잔재가 마치 종교전쟁의 흔적 같아서 착잡한 심정이었다. 어떤 종교든 궁극적 이상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구원과 자비, 사랑이 아니던가.

종교전쟁이 빚은 문명훼손 '착잡'



실크로드 여행길

그러나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에도 얼마나 많은 분쟁과 희생을 야기하고 있는가. 생존 환경이 다르고 그에 따른 문화와 전통이 엄연히 다른 현실속에서 각 민족간의 고유성과 다양성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비록 나만의 우려는 아닐것이다. 유목생활을 하며 검은 차도르를 쓴 여인들의 눈도 아름다웠으며 서구화된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활보도 아름다웠다. 피라미드를 보며 인간의 능력에 불가사이를 터키의 파묵칼레에서는 칼슘이 축적된 하얀 산을 보며 자연과 시간의 위대함에 경이로워 했다.

우주속의 조그마한 별인 지구, 그 속의 티끌같은 존재인 인간 그러나 무엇하나 소중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을까. 동과 서의 교류인 실크로드 여행을 하며 이국적인 풍경에 취하기도 하고 인간의 위대함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줄곧 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생각은 하나, 과연 순수한 종교란 현실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이석주 〈서양 화가〉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 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막아 줄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품질보증

생활 속의 불교 ㊶

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마구니



모든 것은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져 있다. 마음이 없다 하면 부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보살도 마구니도 없다.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천국이니 지옥이니,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불러들인 것이요, 마음으로 세운 것이다.

부처님의 모습을 뵈었다.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했다 하더라도 그때의 부처님 모습,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은 마음이 화해서 나타난 모습이다.

기도 중에 어떤 경계를 보았다, 천신을 만났다 해도 그 또한 마음의 나툼일 뿐이다.

마음 공부를 하는 중에 갖가지 경계가 나타나 유혹을 한다 하는데 그것을 마구니라 하는 까닭도 다만 마음의 나툼이니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마음자리엔 그렇게 부처도 있고 보살도 있고 신장·용신도 있다. 마구니도 있다. 고로 내가 마구니 마음을 내면 마구니는 있는 것이고 신장·용신이 있다고 믿으면 신장·용신도 있는 것이다.

마음에는 무엇이든 다 있다. 수억 겁을 거쳐오면서 얼기설기 마음 먹었던 것이 첩첩으로 쌓여 있기에 무엇이든 다 있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무엇이든 다 세워지기도 한다. 꿈 속에서 온갖 경계를 두루 섭렵하는 것, 그것이 마음작용이듯이 보고 듣고 느껴지고 드러나는 일체는 다 마음 먹기에 의한 것이다. 중국의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나비가 된 것일까, 나비가 내가 된 것일까' 하고 물었다. 마음의 나툼을 말한 것이다.

지금의 내 모습, 이 모양 이 꼴도 마음이 나툰 결과이다. 남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것, 남에게는 숨기고 싶은 자신의 어두운 그늘, 그 모두가 내 마음의 나툼이지 다른 그 무엇에 연관된 것이 아니다.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우리가 행·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에 바탕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기에 누구나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부처와 살고, 보살과 살고, 신중과 살고,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마구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구니가 싫거든 마구니 마음을 녹여야 한다. 불행이 싫거든 불행의 씨앗이 된 마음부터 고쳐먹어야 한다. 남의 미움이 싫거든 내 마음에서 미움을 버려야 한다. 그것만이 바른 길이요, 불법이 일러주는 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 고쳐먹기에 게으르다. 아니, 게으르다기보다는 '내 마음의 나툼'인 줄을 잘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고, 밖으로 남의 탓을 하게 된다. 자신을 바로 보려 하기보다, 제 눈의 티끌을 제거하려 하기보다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다. 말하자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름길을 감추려고 한다. 특히 어두운 그늘, 남세스럽게 느껴지는 일들은 한사코 감추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내가 내게 솔직해지면 우선 바깥 경계, 남의 시선에서 편해질 수 있다. 편해져야 내 모습 내 꼴이 바로 보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 고쳐먹기는 시작된다.

내 모습, 내 꼴에는 부처 마음이 나툰 것도 있고 보살심이 나툰 것도 있으며 마구니가 나툰 것도 있다. 다 드러내어야 마음공부가 바로 된다.

협찬: 윤 병 창